문화여성

문화매일

dailylocal
전국 국내산 특산품 쇼핑몰
www.dailylocal.닷컴

제 1111호 2021년 9월 17일 금요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문재인 대통령,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왕이 국무위원의 방한을 환영하고,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양국이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한편, 양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호정서를 증진하여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발전시켜 나가도록 왕 위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왕이 위원은 중국에 있어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과 중국은 친척처럼 자주 만나야 하며,공자가 삼십이립(三十而立)이라 하였는데, 한국과 중국은 수교 30년을 앞두고 계획을 잘 세워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한중관계가 많이 발전했지만 앞으로 발전의 여지가 많다"면서 "그간 다져온 한중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평창에서 시작한 동북아 3국 릴레이 올림픽이 2022년 베이징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동계올림픽의 직전 개최국으로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베이징올림픽이 평창올림픽에 이어 북한과의 관계

를 개선하는 또 한번의 전기가 되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왕 위원은 "베이징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하루에도 역사적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는 양국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사안으로,양국의 대기 질이 가시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한중 당국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왕 위원은 "시진핑 주석도 녹색,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최근 베이징의 공기질도 좋아졌다"면서, "한국과 환경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상대국 국민의 정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활발한 문화교류·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게임, 드라마, 영화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교류·협력"을 예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 관계의 중요한 토대인 인적 교류를 지속 확대하고, 양 국민 간 왕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당국 간에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왕 위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안부를 전하면서, 양국 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시 주석의 방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해 나가는 한편, 양국이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한중 간 우호와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미 양국이 지속적으로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대북 관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북한은 아직 호응해 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과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왕 위원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 발전을 언제나 지지하는 입장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광수/기자

서울역사박물관' 손끝으로 만드는 서울의 역사' 개최

가족과 함께 즐기는 '서울의 역사 만들기' 키트로 명절에도 안전하게 '집콕'

서울역사박물관은 비대면 한가위 행사의 일환으로「손끝으로 만드는 서울의 역사」를 준비했다. 9월 20일 한가위를 맞이하여 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 선착순 300명에게 특별한 추석선물을 제공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사를 준비했다. 한가위에 가족과 함께 박물관 전시를 관람하는 관람객 선착순 300명에게 박물관 1층 행사부스에서 '서울의 역사 만들기' 3종 키트를 선물하고, 키트 수령 후 7일간, 완성된 키트 혹은 선물을 만드는 모습을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하는 참여자 전원에게는 커피쿠폰 증정 예정이다.

키트는 ① 앨버트 테일러 가옥 딜쿠샤(DILKUSHA) 미니어처 ② 서울역사박물관의 대표 유물 전차 미니어처 ③ 직접 꾸미는 경희궁 에코백, 총 3종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과 함께 키트를 만들고 꾸미며 자연스레 역사에 대한 흥미를 키우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집콕' 연휴를 보낼 수 있다.

행사참여는 모두 무료이나, 현재 코로나19 관련 정부방침에 따라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9월 20일 사전예약 관람 신청 후 박물관 입장가능하다. 단, 제한인원 범위 내에서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추석기간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감염병 극복의 역사를 기록한 로비전시「다시 일상을 꿈꾸며」('21.9.2.~11.7.)뿐만 아니라 서울 근현대사의 주요 무대였던 여의도의 이야기를 담은 기획전「여의도」('21.5.21.~9.26.)를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서울역사박물관의 분관인 청계천 박물관(성동구 청계천로 530)에서도 추석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연휴기간 내(~9.26.) 도성 제1다리 광통교의 600여 년 간 여정을 살펴보는 기획전「광통교」('21.6.10.~11.7.)를 관람하는 선착순 100명에게 기념품 마우스패드를 증정한다.

김용석 서울역사박물관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한가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따듯한 선물을 준비했다. 펜데믹 상황으로 온 가족이 명절을 함께 보내지 못해 아쉽지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경북도, 추석 연휴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마련

방역 친화적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 등 4대 분야 중점과제 추진

경상북도는 지난해에 이어'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경상북도'를 기본방향으로 방역 친화적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 등 4대 분야를 중점과제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등 강력한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 내 무증상 감염자 누적, 휴가철 이동량 증가, 델타 변이 확산 및 방역긴장감 이완으로 유행은 진정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이에 추석연휴 기간 이동량이 급증할 경우 추가 확산 및 새로운 유행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대 분야를 중점과제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방역 친화적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향·친지 방문 시 소규모로 안전한 고향 방문을 안내한다.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으로 고향 방문, 귀가 후 집에 머물며 증상 관찰 및 적극적 진단검사 받기 등을 중점 홍보하며 지속해서 도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또한, 터미널, 전통시장, 대형마트, 관광지 등 다중이용시설과 납골당, 공원묘지 등 봉안시설에 대해 추석 연휴 전에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에 나서기로 했다.특히 묘지 및 봉안시설은 성묘객 사전 예약, 및 성묘객 간 2m이상 거리두기, 비대면(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연휴 동안에도 현장점검을 통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기로 하였다.

추석연휴에도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빈틈없는 대응을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 및 감염병 비상방역 대책반을 운영해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자가 격리자를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연휴기간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확진자에 대응하고자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 및 당직의료기관 비상진료 체계를 구축해 진단검사와 치료로 철저한 방역의료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이번 추석에도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최소인원으로 고향을 방문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세기/기자

장성군 "마을마다 거리마다… 가을꽃 활짝"

장성군의 '옐로우시티 시민정원사'들이 시가지와 마을 곳곳을 꽃과 나무로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어 주목된다.

3년 연속 100만 방문을 달성한 황룡강 노란꽃잔치와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게릴라 정원이 인기를 끌자, 지난해 장성군은 지역 주민들을 조경 전문가로 길러내는 '옐로우시티 시민정원사' 사업을 추진했다.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한 46명의 주민들이 1년여의 교육과정을 거쳐, 지난 6월 1기 수료식을 가졌다.

수료생들은 지금까지 정원 9곳을 조성했으며, 마을별로 추진 중인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해 수목 선정과 식재, 화초류 배치 작업 등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올해 6월부터 교육을 시작한 옐로우시티 시민정원사 2기 교육생들도 일찌감치 현장에 투입됐다. 황룡강 일원을 무대로,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을 위로하는 '빈센트의 오화원(五話園)' 조성이 한창이다. 다섯 가지 이야기를 간직한 아기자기한 정원으로, 추석을 맞아 황룡강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을꽃으로 물든 황룡강과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 만나 소박한 감동을 전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옐로우시티 장성이 보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애쓰고 계신 시민정원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2022년까지 100명의 옐로우시티 시민정원사를 양성해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겠으며, 희망찬 장성의 미래를 함께 가꿔 가겠다"고 말했다.

오홍곤/기자

경기도 "코로나 시대, 잣향기푸른숲에서 자기회복의 시간 가져요" 비대면 치유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가평군 상면 소재 '경기도 잣향기푸른숲'을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접근 방식의 산림치유 프로그램 'SELF 자기愛'를 개발·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SELF 자기愛'는 탐방객이 잣향기푸른숲 주요 숲길에 설치된 QR코드를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혼자서도 충분히 안전하고 자유롭게 산림치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기주도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다.

참여를 위한 별도의 절차나 시간, 타인과의 접촉 없이도 경기도 잣향기푸른숲 내 언제 어디서든 자신에게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돕는다.

QR코드로 지원되는 세부 프로그램은 ▲허그명상 ▲호흡명상 ▲맨발걷기 ▲이완명상 총 4가지로, 자연 속에서의 다양한 명상활동을 통해 자신의 호흡과 몸에 집중하며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용 방법은 경기도 잣향기푸른숲에서 공식 제작한 안내 리플릿을 참고, 명상데크, 쉼터, 팔각데크 등 각 장소에 설치돼 있는 QR코드에 접속해 영상 멘트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안내 리플릿은 매표소나 방문자센터, 힐링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특히 9월 16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설정, 해당 기간 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탐방객들에게 경기도 잣향기푸른숲의 대표 수종인 잣나무오일을 활용한 잣아로마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윤하공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코로나19로 타인과의 접촉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르는 도민이 많은 상황"이라며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숲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치유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 잣향기푸른숲은 수령(樹齡) 80년 이상의 잣나무림이 우거진 수도권 대표의 산림휴양 공간으로, 전문 산림치유지도사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공식 '치유의 숲'이기도 하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제한된 인원으로 방역수칙을 지키며, 산림치유프로그램은 물론, 숲해설, 목공체험, 유아숲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일반 대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경기농정포털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면 무료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조혜영/기자

전남도 공간정보 참여마당, 언택트 여행 콘텐츠로

지도에 교통 · 문화 등 8개 분야 한눈에…개편 6개월만에 이용 10만건

전라남도는 지난 1월 전면 개편한 '공간정보 참여마당'이 운영 6개월 만에 이용 건수 10만을 돌파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언택트 여행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 참여마당'은 전남지역을 실제로 촬영한 항공사진을 기반으로 부동산, 관광, 문화 등 도민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인터넷으로 공유하도록 한 대국민 참여시스템이다.

공급자가 제공한 정보와 함께 수요자가 정보를 생성, 사용자 간 정보교류를 원활하게 하도록 누리집을 웹 형태로 개발해 누구나 PC와 스마트폰으로 '공간정보 참여마당'을 검색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매년 축적된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계열 영상 서비스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분할 화면으로 비교·분석까지 가능하다.

지도 위에 부동산, 교통, 환경, 복지, 안전, 문화, 기상, 관광 등 8개 분야의 공간정보를 중첩해 토지 이용 현황과 변화 모습도 한눈에 볼 수 있다.

올해 이용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

은 지난 1월 시스템 전면 개편에 따른 대민서비스 향상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급격한 환경 변화로 언택트 생활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여행, 관광 등의 외부 활동이 감소추세인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으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어 사용자들에게 인기가 꾸준히 상승할 전망이다.

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추석 명절, 코로나19로 고향 방문이 어려운 출향민께서는 공간정보 참여마당에서 제공하는 현장감 있는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통해 잠시나마 향수를 달래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문재인 대통령, 국방과학연구소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 참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을 방문하여,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을 직접 참관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세계 최강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 시험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오늘 '도산 안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이 SLBM을 잠수함에서 발사한 세계 일곱 번째 나라가 된 것에 대해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김형준 안창호함 함장과의 통화에서 "오늘 탄착 지점의 기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SLBM이 정상궤적을 유지해서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었다는 것이 아주 대단한 일"이라며, "승조원 모두에게 국민을 대표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꼭 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21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가 믿고 바랄 바는 오직 우리의 힘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SLBM을 비롯한 미사일전력 시험의 성공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자주국방의 역량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40년간 지속되어 온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했고,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 성공을 통해 국방우주전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고체추진 발사체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한다면 '국방우주개발'을 넘어 '국가우주개발'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방과학은 평화를 지키는 힘이고, 민생이며 경제"이며, 정부는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북한이 엊그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발사체의 종류와 제원, 또 북한의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미사일 전력 발사 시험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미사일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예정한 날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사일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 종류의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의 성공을 통해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맞서 압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사일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 나가는 등 강력한 방위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최광수/기자

광명시의회 의장단, 추석 명절 대비 물가체험

광명시의회(의장 박성민)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서민경제와 민생현장을 살폈다.

의장단은 15일 광명시를 대표하는 광명전통시장과 새마을시장을 차례대로 방문,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의장단은 코로나19로 지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수용품 물가동향 및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도 점검했다.

아울러 이들은 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생활 방역 동참 캠페인도 진행했다.

박성민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소상공인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보기 행사를 개최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최만식/기자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기지역 장애인 활동가 및 자원봉사자 정담회 실시

15일 경기지역 장애인 활동가 및 자원봉사자 정담회 실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15일 경기지역 장애인 활동가와 자원봉사자를 의회로 초청해 장애인 인권증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정담회에는 최종현 의원(더민주, 비례)과 김춘봉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장을 비롯한 장애인 활동가, 자원봉사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정담회 시작에 앞서 장현국 의장은 "추석을 앞두고 장애인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장애인이 마주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장애인을 향한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고, 사회적으로 만연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과 재활, 자립 지원을 활성화해 장애인이 경쟁력을 갖춘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건의사항으로 '발달장애인 성인기 주간보호시설 확충 및 평생교육센터 설립', '장애여성 인큐베이팅 센터 도입', '장애여성 수공예품 판매시설 지원' 등이 논의됐다.

이어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원 확대',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주변 이동편의시설 조사 개선', '우수 자원봉사자 혜택 홍보 강화' 등이 추가로 다뤄졌다.

장현국 의장은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에서 분투하는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기도의회는 코로나 장기화로 시설 폐쇄 등 커다란 벽에 부딪힌 장애인들에게 실질적 지원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현국 의장은 이날 참석한 장애인활동가와 자원봉사자 11명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조혜영/기자

윤지홍 남원시의원, 전국 최초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 조례 제정

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조례안」

지난 10일 개최된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각종 민원사무 처리 시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처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 요구하는 각종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매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사무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다.

윤지홍 의원은 "남원시는 만65세 이상 인구가 28%를 넘는 초고령 도시로거동이 불편한 마을 어르신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마다 매번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끝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불필요한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 시민들의 불편 감소와 업무 효율성 증대로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와 소감을 밝혔다.

이남출/기자

경북도의회, 의정지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시간 가져

경북도의회는 2021. 9. 15일 14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도정질문 지원 사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직원들 간 의정활동 지원 경험과 사례를 상호 공유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활동 지원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도기욱 경북도의회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의회는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확충 등 큰 변화의 물결 앞에 놓여 있다"며, "의회의 강화된 위상만큼 더욱 복잡·다양화된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역량강화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이 날 간담회는 농수산전문위원실 권중섭 주무관이 도정질문 지원 업무와 관련된 사례발표와 함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직원들 간의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부서 간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상호 소통과 정보공유, 협력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의정지원업무에 그 뜻을 같이하였다.

또한, 최대진 의회사무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여 직원들의 업무역량이 한층 더 강화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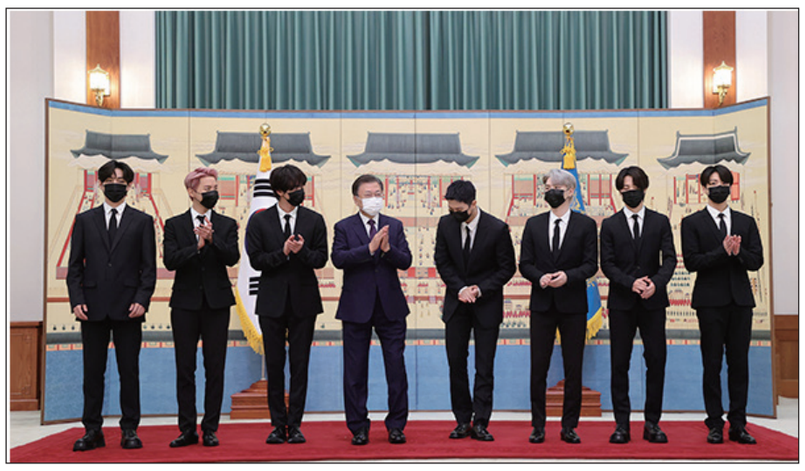
윤광남/기자

문 대통령, 방탄소년단(BTS)과의 환담

문 대통령은 BTS가 대통령 특사를 흔쾌히 수락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유엔에서SDG(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특별행사를 여는데, 정상들을 대표해 내가 전 세계 청년들을 대표해서 BTS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해왔다"면서,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대단히 높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모로 참 고마운 것이 K-팝, K-문화의 위상을 더없이 높이 올려줌으로써 대한민국의 품격을 아주 높여 주었다"면서 외국 정상들을 만나면 BTS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외교활동이 수월해졌다는 경험을 공유했다.

김정숙 여사는 "우리 세대는 팝송을 들으며 영어를 익혔는데, 요즘 전 세계인들은 BTS의 노래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익히고 있다"며 BTS가 한국어 보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BTS를 대표해 RM(김남준)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이라는, 한 국민과 개인으로서 이런 타이틀을 달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영광"이라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보답하고 동시에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특별사절을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환동해산업연구원, 추석 명절맞이 위문 방문

경상북도 환동해산업연구원 전강원 원장(이하 연구원)은 16일 추석을 앞두고 울진군노인요양원을 위문 차 방문했다.

이날 연구원은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요양원과 함께 지역사회의 상생방안을 모색하였고 사랑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위문 물품도 전달하였다.

전강원 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요양원 관계자분들이 명절 기간에도 변함없이 어르신을 보살피는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으며, "경상북도 환동해산업연구원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원은 지난 7월, '울진愛 주소갖기'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윤광남/기자

수원시의회 유재광 의원, 선경아파트 입주자대표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수원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동)은 지난 15일 구운동 선경아파트 입주자대표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길복 선경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유재광 의원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특히 구운동 선경아파트 옆 구운초교 후문 통학로 개선사업 및 꽃동산 조성사업에 크게 기여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패에 담았다"고 밝혔다.

유재광 의원은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인데 주민들의 마음이 담긴 감사패를 받게 되어 무척 감사하고 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낀다"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혜영/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14222 광명시 시청로7 홍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회장 문기주/부회장 박류석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최수진
대표전화:1899-9659 e-mail: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서울.가5014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대표전화 : 1899-9659
편 집 국 : 02)2612-2959
팩 스 : 02)2060-4147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사 회 부: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코로나19, 이용자 많은 버스정류소에 큰 영향… "'수요' 중심에서 '안전' 중심으로 대중교통시설 분산배치해야"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전국의 대중교통이용률은 27.0% 감소했다. 특히 2020년 3월 경기도 버스이용건수는 전년 동일시기 대비 41.4%, 2020년 1월 대비 35.1% 감소했다. 버스이용건수는 2020년 4월부터 다소 증가했지만 8월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2020년 1월에서 8월까지 버스이용건수는 전년대비 23.8% 감소를 보였다.

경기연구원은 코로나19가 가져온 버스이용행태를 분석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 대중교통 정책 방향을 제시한 〈코로나19 상황 버스이용 변화에서 위드 코로나 대안을 찾다〉를 발간했다.

일일 통행량의 16.0%를 차지하는 출근통행량의 경우, 2020년 3월은 1월에 비해 34.0% 감소했고, 차차 증가세를 보이다가 8월에는 다시 15.3% 감소했다.

2020년 3월 통행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서울에 인접한 성남시, 안양시, 수원시로 나타났다. 성남시의 경우 일일통행량은 293.3건 감소, 출근통행량은 40.8건 감소했다.

경기도 버스정류소 2만 9,653개소 중 20.0%인 5,926개 정류소에서 전체의 83.6%인 667만 3,753건의 통행량이 발생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통행량 변화는 이 정류소에 집중되어 2020년 1월에서 3월까지 기간 동안 통행량 84.2%(235만 6,827건)가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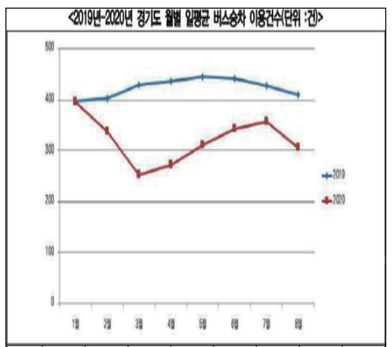
반면, 통행량이 적은 하위 80.0% 2만 3,727개 정류소 통행량은 44만 2,504건 감소(-20.3%)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통행량이 감소하는 시기에도 일부 도심 외곽 정류소에서는 반대로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는 이용자들이 다중접촉을 피하려고 덜 혼잡한 정류소를 이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빈미영 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장은 "현재 버스노선은 이동수요가 많은 노선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정류소를 설치하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될 경우 이동을 위한 정류소 등 대중교통시설을 분산배치하여 대중교통이용 접근성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수요' 중심에서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대중교통과 퍼스널 모빌리티 연계 교통체계 시범도시'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코로나19 시기 대부분의 교통수단 이용량은 감소한 반면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량은 증가하여 개인형 교통수단을 선호하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로 대중교통의 장거리 이동은 감소한 반면 개인교통의 근거리 이동은 증가했다.

빈미영 실장은 "분산 배치되는 대중교통시설과 퍼스널 모빌리티를 연계하여 지역 간 이동은 대중교통, 지역 내 이동은 퍼스널 모빌리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범도시 사업 추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2019	3,978,519	4,034,831	4,299,470	4,366,000	4,450,345	4,410,687	4,276,272	4,095,478
2020	3,957,450	3,376,688	2,520,279	2,718,498	3,099,356	3,420,661	3,572,806	3,060,272
증감율*	-0.5%	-16.3%	-41.4%	-37.7%	-30.4%	-22.4%	-16.5%	-25.3%

자료 : 경기도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gts.gg.go.kr)(2020.12.01. 접속), 빈미영 외(2021),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버스이용패턴 분석연구」, 경기연구원(기본사업)
주 : 2019년 대비 2020년 증감율(지역별:도-전년도/전년도)
주 : 경기도 버스카드데이터를 기반으로 코로나19확산 초기인 2020년 1월부터 8월을 전년도와 월별데이터 비교

강남구, '90년생이 온다' 임홍택 작가 북콘서트 개최

2021 강남구 주제가 있는 월간 인문학… 15일 유튜브 Live 진행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15일 오후7시 논현도서관에서 2018년과 2019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90년생이 온다'의 저자 임홍택 작가 초청 온라인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임 작가는 '나와 다른 존재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주제로 강연한다. 90년생과 이전 세대 간의 차이점을 짚어보며 서로의 가치관과 생각의 차이를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북콘서트는 강남구립도서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누구나 실시간 댓글로 자유롭게 질문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강연 후에는 황정의 논현도서관장의 진행으로 임 작가와의 대담이 진행되며,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문의는 논현도서관으로 하면 된다.

구와 강남구립도서관은 인문학의 저변을 넓히고, 품격 있는 독서문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주제가 있는 월간 인문학' 북콘서트를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다음달에는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저자 채사장, 11월에는 소설가 김중혁의 강연이 예정돼 있다.

정동희/기자

서울시, 세계 뷰티산업 중심도시 도약 위한 '온라인 브랜딩 콘퍼런스' 개최

오세훈 시장 기조연설 "뷰티산업은 서울의 미래 먹거리이자 도시경쟁력 견인할 핵심동력"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회복해 다시 사람과 기업과 투자가 몰리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서울을 세계 트렌드를 주도하는 뷰티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한다.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에서 비롯된 서울의 도시브랜드와 파급력을 K-뷰티산업 전반으로 확장한다는 목표다. 화장품, 미용, 패션, 미식, 웰니스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고 소비하는 관광상품과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가 서울의 K-뷰티산업을 국내·외에 브랜딩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인 「서울 뷰티산업 브랜딩 콘퍼런스」를 16일) 17시45분 서울시 유튜브에서 온라인 개최한다.

「서울 뷰티산업 브랜딩 콘퍼런스」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9일 무관중 사전녹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시서울 K-뷰티산업을 브랜딩하다'라는 주제로 뷰티, 관광, 한류 등 각 분야 국내·외 전문가와 크리에이터 등이 참여해 K-뷰티를 서울, 한류와 연계해 브랜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전략을 제시한다.

오세훈 시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서울을 세계 뷰티산업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서울시의 전략을 소개한다.

기조연설을 통해 오 시장은 "K-뷰티산업을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도시경쟁력을 견인할 핵심동력으로 보고, 다양한 발전·육성정책을 통해 세계 뷰티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뷰티산업은 감성과 웰빙을 지향하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산업이자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일자리 산업"이라고 강조한다.

현재 세계 화장품 시장은 '19년 기준 4,996억 달러, 약 569조원 규모로 매년 5.3% 성장이 예상된다. 작년 국내 화장품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16% 성장하면서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화장품 강국으로 부상했다.

그중에서도 서울은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에 랭크된 4개 국내 업체의 본사는 물론, 국내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45.7%가 위치해 있어 글로벌 뷰티도시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는 뷰티와 관련된 다양한 관광상품과 여행코스를 개발하고 뷰티 크리에이터, 뷰티 플래그십 스토어 등과의 협업방안을 마련해 뷰티 관광도시로서 서울의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한민국 패션 1번지'로 명성을 떨쳤던 '동대문 패션 특구'는 오직 동대문에서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고 새로운 활력이 솟아나는 동대문 뷰티 특구로 거듭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9.15. 발표)를 통해 서울의 4대 미래상(▲상생도시 ▲글로벌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을 확립했다. 뷰티산업 육성은 이 가운데 글로벌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한 세부전략의 하나다.

오 시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전문가 패널토론이 열린다. 김병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이진표 아모레퍼시픽그룹 상무, 이재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 한경아 한국방문위원회 사무국장, 뷰티 크리에이터 이사배,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 등이 참여한다.

전문가 패널토론에 참여한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서울시 뷰티산업 추진배경에 대해 소개한다. 뷰티산업에 대한 육성·지원과 함께 경제·문화·관광 등 서울이 지닌 우수한 인프라를 '뷰티'를 중심으로 융합해 서울을 '아름다운 매력이 넘치는 도시'로 변모시킬 종합적인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다.

최만식/기자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자기기 소매업 등 일부 업종 수혜

한국무역협회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 소매업, 주식 중개업, 물류업, IT 부문은 매출이 증가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학교가 아닌 집에서 개학을 맞이함에 따라 Digiworld, FPT shop, Petrosetco와 같은 전자기기 소매점들의 매출이 급증했다.

매출이 급증한 Digiworld의 주가는 지난 화요일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연초 이후 274% 상승했다.

사람들이 새로운 투자 채널로 주식을 선택하며 주식 중개업 부문이 활성화되고있다.

올해 1~8월 누적 증권계좌 개설 건수는 84만 2,400여 건으로 최근 3년간의 개설 건수를 합한 수치보다 더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물류 및 항만 부문의 기업은 경제 회복에 따른 상품 운송 수요 증가로 매출이 증가하여 성장했다.

올해 상반기 베트남 국영해운기업(VIMC)의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한 2억 6,95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동나이항은 매출이 38% 증가했다.

IT 부문 역시 수요 증가로 매출이 증가했다.

베트남 IT 대기업 FPT社는 2분기 신규 계약금액이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한 2억 5,434억 달러를 기록했다.

최광수/기자

우리 함께 '기대' 해볼까? · · ·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 청소년 영상공모전 개최

영등포구가 미래 주역이 될 청소년들과 기후위기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기대하는(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청소년 영상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들이 직접 콘텐츠를 기획·제작함으로써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그 대응 방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공모주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청소년의 행동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쓰레기 감량 등 생활 속 기후위기 대응 노력 ▲영등포구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기후위기 대응방안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고취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자유롭게 담아내면 된다.

공모 분야는 애니메이션, 모션그래픽, 브이로그,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형식의 영상 콘텐츠로,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여 제출하면 된다.

영등포구 환경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개인 또는 5인 이내 팀을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9월 30일까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모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제작한 작품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제출된 작품들에 대해 주제적 합성, 독창성, 활용성 등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총 10편(대상 1, 최우수 2, 우수 3, 장려 4)의 작품을 선정해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수상작은 영등포구 기후변화 교육 및 행사, 홍보사업 전반에 활용할 방침이다.

심사 결과는 오는 10월 25일 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공모전이 청소년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구민과 함께 기후행동의 실천과 확산에 힘써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미래 세대에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마포구, 코로나19 극복 '사랑(愛) 헌혈' 작은 실천으로 큰 나눔

마포구가 오는 17일 마포구청 정문 광장에서 대한적십자사 헌혈차량을 통한 '마포구 사랑(愛) 헌혈'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안정적인 의료 활동을 위해서는 일일 혈액 보유량이 5일분 이상을 유지해야 하나 지난 15일 기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보유량은 4일분에도 못 미친다 한다.

이는 수개월째 이어지는 고강도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단체 헌혈이 어려워지고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으로 개인 헌혈까지 감소한 탓이다.

더욱이 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헌혈 참여자가 줄어들 것을 대비해 마포구가 대한적집자사와 함께 주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동참을 이끌어내고자 발벗고 나선 것이다.

헌혈 차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2대 운영하며, 채혈실 수시 소독과 헌혈자 간의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날 헌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전자문진'에서 자가 문진 실시 후 헌혈 자격 조건에 맞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사랑애(愛) 헌혈'에는 마포구 직원 1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혈액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

윤종옥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 헌혈개발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단체 헌혈을 권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채혈하는 간호사 모두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했으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니 시민분들의 자발적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주변에 어려움이 생기면 다함께 돕는 마포구민의 힘이 이번에도 발휘될거라 믿는다"라며 "헌혈이 가능한 직원뿐만 아니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라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양천구, 1인가구 주거안전 위한 '안전 도어지킴이' 신청접수

양천구가 1인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에이디티캡스와 손을 잡고 '안전 도어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리서치 '2021 서울시 1인가구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1인가구의 60.7%가 주거침입 범죄를 우려하고 있지만 비용부담 때문(36.9%)에 방범장치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 도어지킴이'는 가정용 보안서비스로 24시간 가동되며 현관에 설치된 도어 카메라를 통해 현관 앞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카메라 내부에는 움직임 감지센서가 내장돼 있어 이용자는 모바일 앱으로 방문자를 확인하고 쌍방향으로 음성대화도 나눌 수 있다. 또한, 위급상황 발생시 앱의 비상버튼이나 집안에 설치된 SOS 비상버튼을 누르면 최단거리에 있는 에이디티캡스 대원이 신속하게 출동한다.

신청접수 기간은 9월 6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며, 만 18세 이상 양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1인가구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임차 거주하는 노약층 1인가구를 포함하여 총 9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 도어지킴이'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3년이다. 최초 1년은 매월 8,900원의 이용료를 보조받아 월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2년은 시중가의 약 절반 가량인 월 9,900원만 지불하면 된다. 단, 야외에 있는 공용현관문이나 담장, 주차장, 창문 등에는 도어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으며, 가정 내 무선인터넷(wifi)과 공유기가 구축돼 있어야 사용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담당자 이메일 혹은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를 득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1인가구 포털이나 양천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범죄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가구를 대상으로 도어지킴이 서비스를 지원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양천경찰서와의 협력체계 구축해 범죄 취약가구를 우선 지원 하는 등 1인가구가 안심하고 살기 좋은 양천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일/기자

노원구,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3년 연속 수상

서울 노원구가 지난 23일 2021년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일반 정책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건강도시상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의 주관으로 매년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노원구는 2019년 '뛰노는 학교, 건강한 학교, 노원 HELP(Healthy Eating Let's Play)'로 우수상, 2020년 '노원아 걷자, 건강하자!'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코로나19 시대 건강? 걷기에서 답을 찾다!'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올해 수상은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비대면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고, 맞춤형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위해 구는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들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약된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뉴노멀 시대에 맞는 IT 기반 비대면 접근으로 건강 사업의 방향을 전환했다. 대규모 주민 행사 대신 앱을 활용한 '소소한 온라인 걷기' 프로그램을 월별로 진행하고, 구민들 간 운동방법을 공유하는 '집콕 운동 뽐내기' 공모전을 실시했다.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기반 건강관리서비스'로 건강관리 취약한 어르신들을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인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 건강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했다. 지자체 최초로 건강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자기주도적 건강관리의 기반을 마련했다. 신체활동 부족군에게 '온라인 걷기' 참여를 권장하고, 이미 꾸준히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구민들에게는 '바르게 걷기 및 파크 트레이닝'을 통해 올바른 건강 습관 형성을 도왔다. 아동 청소년을 위해 학교 내 빈 교실, 유휴 공간에 가상현실(VR) 장비를 도입한 선진형 건강놀이터를 조성하고, 지역 내 자가격리자들을 위해 '신체활동 꾸러미'를 지급하는 등 대상자 별, 상황 별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걷기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했다. 보행로 곳곳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하여 걷고 싶은 길로 꾸몄고, 전체 구 면적의 62%를 차지하는 녹지를 활용해 권역별 산책길 조성에도 공을 들였다. 무장애 데크길, 불암산 엘리베이터 전망대 등을 설치해 보행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은 물론이고 타 지역 사람들도 자주 찾는 명소로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0년 노원구민의 건강생활 실천율은 55.2%로 작년 대비 9.4%가 향상했으며, 걷기실천율도 2017년 최하위에서 202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로 크게 상승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지속가능한 건강복지 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한 그간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인천시, 경쟁력 있는 디지털농업, 잘 사는 농업인 위한 지원 첫걸음

인천광역시는 14일 인천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인천 농업의 '경쟁력 있는 디지털농업, 잘 사는 농업인 구현'을 위해 인천농업기술센터와 농협중앙회인천지역본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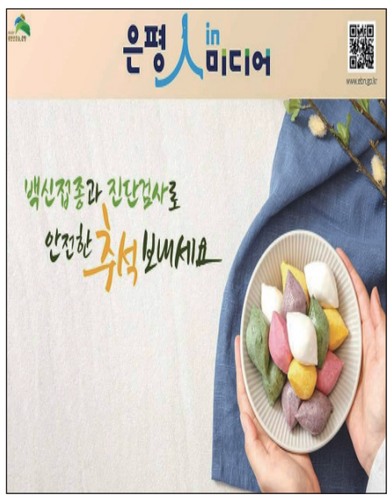
조영덕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이강영 농협인천본부 본부장 등 업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업무협약은 경쟁력 있는 디지털 농업 등의 촉진을 통해 지역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관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지능화·데이터 기반의 디지털농업 촉진, △연구개발 결과와 기술정보 공유로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 △지역단위 협업체계 구축으로 신기술 보급 및 현장 확산, △도시농업 확산 및 실천인력 육성 협력,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 △기술·정보·경영 자원을 통한 청년농업인 육성 등으로 농업에 관한 기술 및 정보 공유 등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조영덕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속적인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양 기관의 뜻을 모은 의미 있는 협약을 맺게돼 기쁘고 나아가 도시농업, 치유농업을 통해 인천시민에게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은평구, "추석연휴, 은평人미디어와 함께 하세요"



서울 은평구는 추석 연휴를 맞아 주민들의 건강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도록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은평人(인)미디어' 홈페이지에 16일부터 24일까지 게시한다.

올해 1월 신설한 '은평人미디어'는 '은평사람의 미디어'와 '미디어 속의 은평'이라는 뜻을 가진 은평구 미디어 홈페이지다. 동영상과 카드뉴스 등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해 주민에게 각종 생활정보와 은평구 행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은평구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에 주민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

구는 16일 '나는 도시인이다-전통시장 탐방 편' 콘텐츠를 게시한다. 추석 명절을 앞둔 은평구 전통시장 풍경과 행사를 생생하게 소개하기 위해 브이로그 형식으로 준비했다.

17일은 '파발이가 판다' 콘텐츠로 은평구 캐릭터 파발이가 '추석 체크리스트'를 안내한다. 연휴 기간 문연 병원 및 약국, 쓰레기 배출일 등을 쉽고 재미있게 파발이와 함께 점검할 수 있다.

20일 '추석엔 집콕' 콘텐츠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집콕 요리를 소개할 예정이다.

22일 '休 명상' 콘텐츠는 추석 연휴 겪는 명절 스트레스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영상으로 지친 주민들의 마음에 쉬어가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24일 '은평in홈트-칼로리 버닝 편' 콘텐츠는 추석연휴 고 칼로리 명절 음식으로 인해 급하게 찐 살을 되돌리기 위한 고강도로 칼로리 태우는 운동법을 소개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추석을 맞아 준비한 은평인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주민들께서 건강하고 풍성한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연휴 기간에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서초구의회, 관내 경찰서 격려 방문

서초구의회는 지난 14일 추석을 앞두고 관내 서초경찰서를 방문해 현장근무 중인 의경대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의회를 대표해 경찰서를 방문한 김안숙 의장과 최종배 부의장은 추석 기간 구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내도록 밤낮으로 고생하는 의경대원을 위로함과 동시에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날은 컵라면 1,500개를 전달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애쓰는 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안숙 의장은 "경찰과 의경대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린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서초구민이 안심하고 든든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다. 앞으로도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치안에 힘써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수원시, 추석 앞두고 경기도와 가격표시제 실태 합동점검

경기도내 다중이용건축물 중 버스터미널, 대형할인매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경기도가 추석명절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터미널, 대형할인매장 등 도내 다중이용건축물 1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74건의 시정사항이 발견됐다.

도는 안전관리실 주관으로 민간전문가, 시·군 담당부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운수시설 3곳과 판매시설 7곳의 안전관리 실태 및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점검대상 10개 시설 모두에서 피난·대피로, 비상계단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총 7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A터미널에서는 터미널 내 매장의 분전반 앞에 물건을 쌓아놓아 분전반을 여닫을 수 없게 해놨으며, 다른 매장 옆 방화셔터 아래와 방수기구함 앞에도 테이블 등 물품을 놓아 재난 시 대피를 어렵게 했다.

B쇼핑몰에서는 가스누설자동차단기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었으며 피난안내도를 부착하지 않은 매장도 발견됐다. 전기설비와 예비발전기 등의 접지저항 측정도 누락돼 있었다.

도는 현지에서 29건을 시정했으며, 즉시 시정이 되지 않는 사항 45건에 대해서는 해당 시에 통보해 시정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점검결과에 따른 안전조치가 이뤄지고 위험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 시·군 등 관계기관에 사례를 공유하고 이행실태 등을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다중이용건축물 등 각종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설·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겨울철 등 재난 취약시기별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안전점검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중구, "과대포장 그만!"…명절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울산 중구가 추석을 앞두고 13일부터 15일까지 지역 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펼쳤다.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여 자원 낭비를 막고,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 선물세트로, 포장공간 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대 포장에 해당된다.

단속반은 간이 측정을 통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품목은 포장 방법 검사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했다.

검사결과 포장 기준 위반 제조사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포장 검사 명령 제품과 실제 판매 제품의 동일여부 판단을 위해 제품 정보를 꼼꼼히 살피고, 2020년 7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은 고정·완충재 적용 비율이 10%에서 5%로 강화된 만큼 해당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과대포장은 가격 인상, 자원 낭비, 쓰레기 발생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제조·유통 업체가 자발적으로 포장재 사용을 줄여야 한다"며 "아울러 소비자도 과장되고 화려한 포장 제품에 현혹되지 말고 내실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기현/기자

무안군,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소방, 전기, 가스 등 5개 분야 합동 점검

무안군은 최근 추석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무안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전기, 소방, 가스 등 5개 분야에 대한 합동점검으로 진행됐다.

점검반은 초의선사 유적지, 남악복합쇼핑몰, 무안버스터미널, 회산백련지 수상유리온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연락망, 비상상황 매뉴얼 수립 여부 ▲구조물의 균열·누수·침하 등 발생 여부 ▲분전반, 누전차단기 점검 ▲옥내소화전, 소화기 설치 여부 ▲스프링클러 정상작동 여부 ▲가스용기 보관실 내 가연성물질 방치 여부 ▲가스차단기, 경보기 등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 등의 점검 업무를 수행했다.

군은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까지 시설물 보수·정비를 마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물은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해 항구적인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이번 점검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취약시설에서의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군민들께서 안전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재난·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석/기자

경기도, 추석 앞두고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건축물 합동안전점검. 74건 적발

경기도내 다중이용건축물 중 버스터미널, 대형할인매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경기도가 추석명절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터미널, 대형할인매장 등 도내 다중이용건축물 1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74건의 시정사항이 발견됐다.

도는 안전관리실 주관으로 민간전문가, 시·군 담당부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운수시설 3곳과 판매시설 7곳의 안전관리 실태 및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점검대상 10개 시설 모두에서 피난·대피로, 비상계단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총 7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A터미널에서는 터미널 내 매장의 분전반 앞에 물건을 쌓아놓아 분전반을 여닫을 수 없게 해놨으며, 다른 매장 옆 방화셔터 아래와 방수기구함 앞에도 테이블 등 물품을 놓아 재난 시 대피를 어렵게 했다.

B쇼핑몰에서는 가스누설자동차단기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었으며 피난안내도를 부착하지 않은 매장도 발견됐다. 전기설비와 예비발전기 등의 접지저항 측정도 누락돼 있었다.

도는 현지에서 29건을 시정했으며, 즉시 시정이 되지 않는 사항 45건에 대해서는 해당 시에 통보해 시정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점검결과에 따른 안전조치가 이뤄지고 위험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 시·군 등 관계기관에 사례를 공유하고 이행실태 등을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다중이용건축물 등 각종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설·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겨울철 등 재난 취약시기별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안전점검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김해시, 불법사금융 거리두기 캠페인 실시

김해시는 15일 동상동 전통시장 일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해시는 경상남도 및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누리집, sns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불법사금융 거리두기' 캠페인을 홍보하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시장상인회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상담·신고센터 등을 널리 홍보하였다.

이 날 캠페인에서는 정식 등록 대부업체 확인방법, 불법사금융 피해유형, 불법사금융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전화1332) 또는 경찰청(전화112)으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대부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된 정식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광용/기자

구미시 볼링장 민·관 합동 특별 지도·점검

구미시, 구미시체육회, 볼링협회 관내 볼링장 합동점검

구미시는 9월 14일 오후 2시, 집합금지가 해제된 관내 볼링장 14개소를 구미시체육회와 볼링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특별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볼링장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반은, 관내 볼링장 업주를 대상으로 안내문과 볼링장 방역수칙을 배부함과 함께 볼링장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또한 선제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볼링장 업주 및 종사자가 주1회 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이와 더불어 장기화된 코로나19와 집합금지로 인해 힘든 볼링장 업주의 고충을 경청하였다.

현재 구미시 내 체육시설에는 32종 732개의 시설이 있으며, 최근 볼링장에서 잇따른 확진자의 발생으로 인해 지난 9월 2일 0시부터 9월 12일 24시까지 11일간 볼링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또한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6개조 19명으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을 운영하여, 볼링장 집합금지 이행여부 및 관내 체육시설 732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도·점검하였으며, 특히 단일 시설 폐쇄로 인한 풍선효과로 코로나19 전파 위험 정도가 높은 취약 종목 시설(볼링장, 당구장 등)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집중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장세용 시장은 "연일 지속되는 방역강화 조치로 볼링장 업주분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다가오는 추석연휴와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서 다시한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장동호/기자

이천시, 추석 명절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이천시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9월7일 부터 9월15일 까지 관내 다중이용시설 8개소(이천 이마트, NC백화점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추석 명절대비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은 이천시, 이천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천여주지사, 민간전문가, 안전보안관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와 합동점검으로 이루어졌다.

이마트, NC백화점 등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곳을 주요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건축물 구조부 결함 발생 여부, 화재대비 소화장비 및 방화구획,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상태, 전기시설 접지 적합여부 등 분야별 안전점검 및 특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추석명절 이전까지 후속 조치 등 집중 관리할 것이며,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재해 없는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관내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율/기자

경기도 소방본부 추석연휴, 어느 병원에 가야할지 모른다면? 119에 전화하세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추석연휴 기간 응급환자 관리를 위해 도내 병·의원진료현황을 파악하는 등 구급상황관리에 들어갔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부터 23일 오전 9시까지 이번 연휴기간 동안 도내 병원 860곳 중 391곳(응급실 65곳 포함)

경기도 소방본부, 추석연휴 기간 의료정보 정비 등 구급상황관리 들어가

이, 의원은 1만5,303곳 중 5,654곳이 정상적으로 진료를 진행한다. 약국은 도내 5,341곳 중 3,239곳이 연휴에도 문을 연다.

도 소방본부는 이 기간 119 신고 접수를 받는 상황근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번에 파악한 병·의원과 약국 정보 안내방법을 교육해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조난·교통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현장에서 응급처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급상황관리사가 24시간 상주해 심폐소생술 등 전문 응급처치와 각종 구급상담 안내에 대응할 계획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 하루 평균 상담전화 건수는 923건으로 지난해 일평균 상담전화 566건과 비교해 63%나 증가했다. 2018년과 2019년 추석연휴 때는 그 해 연간 일 평균 상담건수보다 각각 106%, 99% 늘어났었다.

조창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장은 "정확한 의료기관 정보를 전달해 도민들이 긴급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휴대응의 주요 목표"라며 "연휴기간에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로컬 청년스타트업 '칠링키친' 광명시 도움 받아 눈부신 성장!

로컬 청년기업 '칠링키친' 국내유일 원스톱 푸드 트럭 공유주방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승승장구

광명시의 창업지원 정책이 지역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칠링키친'은 광명시 창업지원센터 독립오피스 입주 기업으로, 푸드트럭 창업자들의 사업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유주방 서비스와 전문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푸드 트럭의 창업환경을 개선해 주는 스타트업이다.

특히 올해 4월 광명시가 지원하는 로컬스타트업 육성사업을 통해 코로나 19 등 대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 입주당시 1억 원 규모였던 매출이 올 상반기 5억 원으로 1년 동안 5배가 늘어났으며, 입주당시 2명이던 직원은 올해 12명으로 6배가 증가했다.

칠링키친 대표 함현근은 "지난 해 광명시로부터 사무실뿐 아니라 사업화 자금, 멘토링 등을 지원받은 덕에 사업이 자리 잡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 중심의 고용을 더 늘려갈 것"이라 말했다.

광명시 창업지원센터는 지역 예비창업자부터 성장단계 기업까지 창업생애 전반을 수용하고자 구축한 시 창업지원시설로 독립오피스, 공용오피스, 코워킹라운지(카페,스튜디오,미팅룸)등 전 층이 창업자 맞춤형 공간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최만식/기자

최대호 안양시장, "추석연휴 가정마다 풍요로움이 보름달처럼 피어오르길"

계란을 풀어 호박전과 생선전을 부치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게살과 햄이 들어간 꼬치를 만든 솜씨도 웬만한 요리사 못지않다.

쉐프로 변신한 최대호 안양시장이 1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안양시민에게 영상메시지를 전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추석음식을 만드는 모습의 쉐프 최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가운데서도 8월 한가위가 찾아왔다며,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이 넘치고, 보름달처럼 풍요로움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희망의 씨앗을 키우는 농부의 마음처럼 연 초에 소망했던 일들을 하나

하나 이뤄가는 풍성한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란다는 말도 전했다.

최 시장은 바구니 가득 담은 전을 선보이며,"한 상 정갈하게 준비해 올립니다."라는 말로 추석메시지를 마무리 지었다.

이 영상은 유튜브 또는 페이스 북과 인스타그램 등 안양시 공식 sns에서 볼 수 있다.

한편 안양시는 주요 행사의 인사말과 회의 진행 및 교육 등을 영상제작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시대에 부응하고 있다.

최정부/기자

파주시 중앙도서관, 온라인으로 독서마라톤 계속 된다

파주시 중앙도서관은 독서마라톤 홈페이지를 구축, 9월 13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독서마라톤 대회'는 독서를 마라톤에 비유해, 올해 15년째 진행되고 있는 책읽기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한 독서진흥운동이다.

중앙도서관은 코로나19로 등교일 조정, 온라인 수업 전환 등 외부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안전한 독서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독서마라톤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독서마라톤 홈페이지는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접속해 참여할 수 있으며 코스변경 및 기록내용 수정, 첨부, 삭제 등 참가자가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작성한 독서기록 일지는 개인의 기록관리로 활용이 가능하며 PDF파일로 출력도 가능하다.

올해 3월에 시작된 독서마라톤은 홈페이지 개설에 따라 9월부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운영되며

2022년부터는 파주시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독서마라톤에 참여하면 된다. 운영코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풀코스, 하프코스, 단축코스, 거북이코스 등으로 구성돼 있고, 가족단위는 릴레이 코스에 참가할 수 있다. 완주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하고 지역서점 할인혜택, 인증서 및 기념품이 제공되며, 우수완주자의 경우 독서기록장을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한영기/기자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사랑 토크콘서트 성공적으로 마치다!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2021년 9월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한 생명사랑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의정부시 주최, 의정부시보건소,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실시간 시청자 수 1,327명, 평균 시청자 수 270명, 조회수 2,094회를 보였으며, 시청자 참여도(댓글) 또한 2,174건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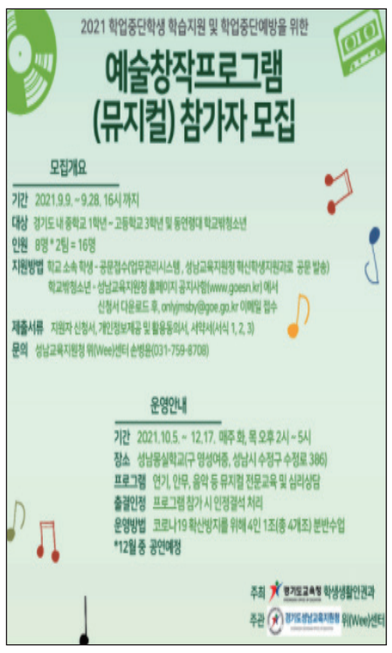
생명사랑 토크콘서트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구성된 팟캐스트 및 유튜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뇌부자들을 초청하여, 1부는 정신건강 2부는 자살 위험성 3부는 시청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가벼운 위로가 아닌 현실에 뿌리내린 단단한 조언을 전하는 점에 있어서 그 의미를 더했다.

또,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가 낯설 수 있는 무거운 주제를 사전 접수된 사례기반으로 강연이 진행되다 보니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역할안내를 통해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일조했다.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장은 "코로나19 및 개개인의 어려움으로 인해 켜켜이 쌓인 화를 해소하지 못하고, 억누르고 침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행사를 통해 마음속에 자리한 해묵은 상처를 바라보고 오랜 상처를 달래줄 시간이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변 이웃에 대한 온정과 지속적인 생명사랑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을 촉구했다.

한영기/기자

성남교육지원청, 2021 예술창작프로그램(뮤지컬) 참가자 모집



성남교육지원청 위센터는 오는 28일까지 예술창작프로그램(뮤지컬) 참가자 16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10년 째 운영돼 온 이 프로그램은 창작예술과 공연예술, 심리상담 등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게는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경기도 내 중학교 1학년 부터 고등학교 3학년 및 동연령대의 학업중단 위기학생, 의무육단계 학업중단학생, 학교밖청소년, 뮤지컬에 관심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예술창작 프로그램은 다양한 예술교육과 협력적 창조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 및 공감·소통능력 배양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심리상담과 더불어 연기·안무·음악 교육을 받은 후 뮤지컬 공연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꿈과 끼를 발산하고 진로를 개척해나가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율/기자

평택시의회, 추석 명절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격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고충 등에 관한 애로사항 청취

평택시의회는 15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격려하는 시

이 자리에는 홍선의 의장과 강정구 부의장, 이관우, 최은영, 이해금 의원 및 평택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강태숙 센터장, 평택좋은이웃아동복지센터 김동순 센터장, 꿈나무지역아동센터 조인숙 센터장이 참석했다.

홍 의장과 참석자들은 덕담과 담소를 나누는 한편 시설 운영에 따른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시설 관계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이어 평택시의회는 간담회가 끝나고 소정의 격려 물품을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해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홍 의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의 확산이 더욱 필요하다"며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의 권익 향상과 이용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매년 명절에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격려 및 지

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남주/기자

의왕시장애인체육회, 비지땀, 시티병원장례식장과 MOU체결

의왕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3일 사회적협동조합 비지땀, 시티병원장례식장과 각각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청 제1별관 내 의왕시장애인체육회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각 대표들이 자리한 가운데 간소하게 이루어졌다.

의왕시장애인체육회와 사회적협동조합 비지땀과의 협약은 장애인체육회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물적 지원, 야외 활동을 위한 '희망나눔버스'지원 등을 약속했으며, 의왕시장애인체육회도 비지땀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시티병원장례식장과 협약에서는 의왕시장애인체육회 임·직원(가족) 및 종목단체(가족)가 장례식장 이용시 분향실 사용료 할인 및 화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양 기관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 등을 널리 홍보하기로 약속했다.

의왕시장애인체육회 가정호 사무국장은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주신 두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업무제휴를 통하여 의왕시 장애인체육복지 사업의 질적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종균/기자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온라인 기념영상 송출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10일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영상을 콘텐츠로 제작해 협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기념영상은 '일상회복과 포용복지 구현'을 주제로 기념사, 유공자 포상, 축사,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영상제작은 코로나19로 매년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 개최해 오던 기념행사의 취지는 살리되 비대면 방식으로 사회복지종사자, 봉사자, 후원자, 지역주민들이 함께 그 의미를 살리고자 기획된 것이다.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사회복지 유공자 28명에 대해 하남시장, 국회의원, 하남시의회 의장 표창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사전 수여했다.

시민들에게는 사회복지의 날 이해를 돕고자 홍보물품에 안내문을 별도로 제작해 배부했다. 또 유튜브 채널 사전 신청자를 받아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전달하는 등 모두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과 소통했다.

제22회 하남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 영상은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박강호/기자

용인시, 이웃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용인시 곳곳 훈훈

추석 앞두고 백미·상품권·김치·마스크 등 기탁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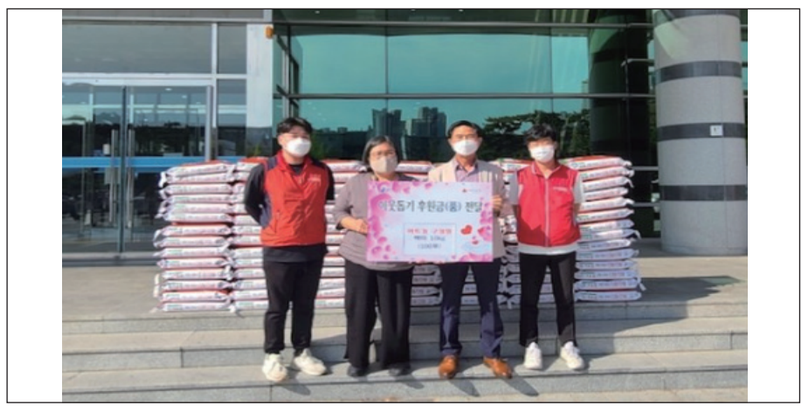
용인시는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들이 곳곳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기흥구에는 마북동 소재의 마트킹 구성점이 백미 10kg 100포를 기탁했다. 마트킹 구성점은 그동안에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며 이웃돕기에 앞장서 왔다.

김희봉 대표는 "함께 나눌 때 행복은 배가 된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기회가 닿는 대로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처인구 남사읍에는 새마을부녀회가 지역의 저소득 홀로 어르신을 위해 김과 생활필수품이 담긴 선물 세트를 전달했다. 이날 홀로 어르신 80가구에 전달된 선물 세트는 앞서 지난 6일 김을 판매해 수익금과 자체 기금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이경애 회장은 "이웃을 위하는 새마을부녀회의 회원 모두의 마음을 담았다"며 "홀로 추석을 보내시는 어르신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덕1동에는 흥덕IT밸리 관리위원회가 200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기부했다. 흥덕IT밸리 관리위원회는 매년 명절이나 연말연시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과 물품을 후원해 왔다.

양광진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몸도 마음도 지친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자 준비했다"며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상갈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서용인청년회의소, 상갈동 소재 마냐나 카페, 기흥장례식장이 추석명절음식 세트, 마스크 및 단팥빵, 음료를 각각 100세트씩 기탁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 및 홀로 어르신을 위해 마련했다"며 "정성을 담아 준비한 음식 등이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정동에는 원불교죽전교당이 취약계층에 전해달라며 김치 20박스를 기부했다. 원불교죽전교당은 지난해에도 지역 내 저소득 20가구에 직접 담근 김치를 전달했다.

이형권 교무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한가위를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두루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외롭고 쓸쓸한 명절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모두가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들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양평군, 2021년 산림환경 교육 및 숲해설 시범사업 추진

양평군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산림환경 교육 및 숲해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산림환경의 중요성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육사업으로 관내 11개 초등학교, 64개 학급, 1,529명이 신청했다.

학생들은 9월부터 11월까지 쉬자파크와 양강섬, 용문산관광지, 산나물공원에서 숲해설가들과 신나는 체험활동을 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산림과와 양평혁신교육협력센터의 협업으로 진행되며 양평혁신교육협력센터에서는 학교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에듀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림과에서는 숲해설가를 지원하고 있다.

숲해설 시범사업에 참여한 교사는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체험활동에 제약이 많았는데 관내 숲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게 돼 좋았다"고 말했다. 한편 군관계자는 "금번 산림환경 교육 및 숲해설 시범사업 진행과정에서 설문을 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2년도에는 더욱 참신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성율/기자

정하영 김포시장 "양곡 핵심 도시계획도로 확실히 추진… 기존 도로는 깔끔하게 정비"

15일 정하영 김포시장이 '양촌읍 찾아가는 시장실'을 열고 주민들과 지역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주민들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양곡 구시가지 정비와 택지지구 주차난 해소 등을 건의했다.

김포시는 청암상가 앞 도시계획도로의 실시설계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했으며 2022년 본예산에 보상비를 편성하고 공사 착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양곡 구시가지는 가로등 정비를 마쳤으며 보도블럭을 점검하고 도로 재포장이 필요한 구간은 내년 상반기에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복합체육시설이 들어서는 택지지구 일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독립운동기념관 주차장을 자주식으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하영 시장은 "그동안 양곡 구시가지에 대한 다양한 발전 방안들이 나왔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핵심 도시계획도로 한두 개를 확실히 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고 기존 도로는 깔끔하게 정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지역 활성화 전략이 될 것"이라고 부서합동 대처를 지시했다.

한영기/기자

성남시의회, 추석 맞아 우체국 방문 격려

성남시의회는 1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남우체국과 성남분당우체국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을 꺼리는 경향으로 인해 우편물이 폭증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추석은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전하려 전국에서 오가는 명절 선물 등의 우편물 증가로 업무량이 급증하여 집배원들은 밀려드는 일감에 쉴 틈도 없이 일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빠른 우편물 전달에 최선을 다하는 집배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우체국을 방문했다.

우체국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사회적으로 모든 국민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모든 집배원이 정성과 사랑이 담긴 추석 선물을 신속, 정확하게 배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창근 의장은 '시민들이 즐겁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집배원 여러분 덕분이다. 여러분이 있어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우체국과 성남분당우체국에서는 추석 명절 기간 32만여 건의 소포 우편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성율/기자

산삼 항노화의 모든 것을 한눈에, 2021함양산삼엑스포

산삼주제관, 약용식물관, 생활문화관 등 산삼 관련 정보 한자리에

이달 10일 개막한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에서는 산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산삼의 과거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10개의 전시관을 만나볼 수 있다.

테마별로 구성된 10개의 전시관 중 산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시관은 3개소(산삼주제관, 약용식물관, 생활문화관)로 구성된다.

산삼주제관은 산삼과 항노화산업에 대한 지식을 쌓은 공간으로 산삼의 5개 꽃잎을 형상화하여 지어진 독특한 외관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야간에는 건물 외벽에 미디어파사드를 연출하여 볼거리도 제공하고 있다.

산삼주제관 내부는 ▲심마니 생활풍습 등을 전시한 함양산삼관 ▲함양군의 산삼과 항노화산업 등을 전시한 항노화산업관 ▲함양 산삼의 가치를 동양화 기법으로 표현한 영상을 볼 수 있는 미디어 갤러리 ▲함양의 주요 명소 등을 vr로 체험할 수 있는 vr 체험존으로 구분된다.

또한, 산삼주제관의 전망대는 엑스포 행사장과 상림공원을 조망할 수 있고, 지리산 산세와 산삼으로 트릭아트를 표현하여, 관람객에게 휴식과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약용식물관은 함양의 약용식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공간이다. 약용식물관에서는 ▲약용식물의 역사적인 기록과 약용식물의 종류 ▲함양 산양삼의 자연환경, 게르마늄 등으로 우수한 효능과 특징 ▲어린이를 위한 가상으로 모래를 이용한 산양삼 재배 체험 등 지식을 습득하고 체험을 할 수 있다.

생활문화관은 ▲(intro) 삼의 어원과 특징안내 ▲(zone1) 삼의 형태 및 세계의 삼에 대한 소개 ▲(zone2) 산양삼의 재배정보 및 인터랙티브 체험공간 ▲(zone3) 산양삼의 성분 및 효능, 관련 제품전시 등 ▲(outro) 산양삼 산업발전을 위한 함양군의 노력을 소개하는 전체 5개의 존(zone)으로 구성된 테마전시관으로 산삼과 관련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소이다.

김종순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은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는 산삼의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전시관 뿐만 아니라, 산양삼 생산과 가공품을 구입 할 수 있는 전시관도 마련되어 있다"면서 "엑스포 기간 중 다양한 전시 콘텐츠 및 체험 공간을 준비하였고, 코로나 방역대책을 철저히 준비하였으니, 안전하게 엑스포를 즐기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엑스포장 내 전시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며, 입장권 구매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현장 매표소나 온라인 '티켓 링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한편 대전, 대구, 진주 방면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엑스포장을 찾는 방문객은 서함양ic 이용을 추천한다. 작년에 개통한 서함양 ic는 하이패스 전용으로 복잡한 시내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행사장까지 이동할 수 있다.

최광용/기자

창원시, 추석연휴 서항지구 친수공간 및 마산해양신도시 수변산책로 임시 개방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해안변 힐링공간 제공

창원시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9월 13일 13시 이후 14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9월 14일 12시 기준 총 누적 확진자는 2,922명이며 완치 2,531명, 치료 중 385명, 사망 6명이라고 전했다.

시는 14일 기준, 시민들의 백신 1차 접종률이 64.3%, 접종 완료가 37.1% 이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고, 지난 8월 30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한 이후에도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5일간 시민의 방역과 안전에 최우선으로 집중하는 '추석연휴 종합대책'을 수립, 추석 연휴 기간에 △종합상황팀, △시민안전 관리팀, △생활민원 해소팀, △경제·에너지 안정팀, △소외계층 지원팀, △비상진료 대책팀 총 155명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시민과 방문객이 불편 없는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에 이동량 증가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시는 창원 관내 보건소와 만남의 광장, 마산역, 창원종합버스터미널 등 6개소의 선별진료소를 운영, 연휴 기간에도 진단검사가 가능하다.

한편 시는 추석 연휴 동안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해안변 힐링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항지구 친수 공간의 산책로 및 휴게쉼터, 마산해양신도시 호안변 수변 산책로 총 3.2km 중 서항 1교와 서항 2교 사이 약 1km 구간을 임시 개방한다. 다만, 현재 전기 인입이 완료되지 않아 화장실 사용이 불가하고, 가로등 점등이 되지 않는 관계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추석 연휴에는 시민들이 달라진 아름다운 마산만과 탁 트인 자연 경관을 만끽하며 코로나19로 지쳤던 몸과 마음을 힐링해보시길 추천드린다"라며 "지금처럼 마스크 착용 등 개인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일상생활 복귀 전에는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고 복귀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남궁영기/기자

경북도의회사무처 직원 영덕 장보기 행사 참여

화재로 피해 입은 영덕시장의 조속한 복구 기원

경상북도의회는 9월 14일 최대진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덕 임시시장을 찾아 추석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지난 4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시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14일 영덕장날에 맞춰 (구) 야성초등학교 부지에 임시시장을 개장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이날 개장에 맞춰 장보기 참여를 통해 영덕시장의 조속한 복구와 정상화를 기원하였으며, 이날 장보기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부서별 4인씩 팀을 나눠 각자 필요한 제수용품 구입 등 분산하여 이루어졌다.

앞서,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6일 영덕시장의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및 복구상황을 둘러보고 위로금을 전달한 바 있다.

최대진 의회사무처장은 "영덕 전통시장이 빠른 시일내에 복구되어 상인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광남/기자

울산해경,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 온정 나눔

울산해양경찰서는 15일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과 소외된 이웃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는 온정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방문한 복지시설은 울산 중구 소재의 울산시립노인요양원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울산해경은 위문금을 전달하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울산해경 소속 관내 5개 파출소에서도 추석 명절 관내의 어려운 이웃들을 방문하여 작은 정성을 전달했다.

울산해경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헌신해 주시는 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모두의 관심과 도움으로 그늘진 곳이 없는 따뜻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해시 '그리다, 100가지 말 상처' 3개 시립도서관 순회 전시

김해시는 오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3개 시립도서관(칠암·진영한빛·장유)을 순회하며 아동권리 인식 향상을 위한 '그리다, 100가지 말 상처'전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리다, 100가지 말 상처'는 국제구호개발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창립 100주년을 맞아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 100가지'를 선정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을 그린 아이들의 그림을 활용한 기획 전시이다.

지난 8월 아동친화도시 김해 사업의 일환으로 김해시청사 내에서 이루어진 전시와 연계한 이번 행사는 아동과 부모의 이용이 활발한 도서관에서 진행돼 더 높은 효과가 기대된다.

전시 일정은 27일~10월 8일 칠암도서관을 시작으로 10월 12일~22일 진영한빛도서관, 10월 26~11월 5일 장유도서관 순이다.

배선영 인재육성지원과장은 "이 전시를 접하고 생각보다 더 많은 말들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들의 시선으로 표현한 전시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권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경남 최초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았으며 시립도서관들은 북스타트, 독서교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등 다양한 아동 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김해 위상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최광용/기자

'남해랑 썸타자' 두근두근 9월 깜짝 이벤트!

남해군은 '2022 남해군 방문의 해'를 앞두고 공식블로그 '남해랑 썸타자'를 통해 특색있는 SNS 깜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9. 14.부터 24.까지 2주간, 관광명소와 숨은 명소 알아맞히기 등 재미난 주제로 총 4회 진행 될 예정이다.

특히, 당일 개최 이벤트는 선착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참여하는 재미를 더하고 하루 또는 5일간 이어지는 색다른 이벤트로 전 국민이 기다리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당첨자 선정 발표는 행사가 진행된 다음날 바로 공지하고, 남해군홈페이지 및 공식 SNS를 통해 명단 확인이 가능하다.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1만원권의 모바일상품권이 지급되며,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10월 8일(금)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김성근 행정지원담당관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고 유쾌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라며 "자유롭지 못한 추석이지만 군민·향우 여러분께서 가족과 함께 퀴즈정답도 풀고,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대비 기발한 제안도 나누고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김철훈 영도구청장, '함께해요, 이삼부' 캠페인 동참

김철훈 부산 영도구청장이 지난 15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범국민 응원 캠페인 '함께해요 이삼부'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산자원부와 부산시가 주관하고,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열기 확산을 위해 진행되는 전 국민적 응원 캠페인이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박형준 부산시장을 필두로 정부기관, 기업인, 유명인사 등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공한수 서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철훈 구청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부산이 동북아 해양수도, 국제관광도시, 문화도시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전 영도구민의 염원을 담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함께해요 이삼부'캠페인 다음주자로 신기삼 영도구의회 의장, 고대영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의 참여를 요청했다.

남궁영기/기자

울산교육청 중등 영어 교수학습자료집 개발·보급

에듀테크 융합 영어교육 기반 마련, 미래영어교육 모델 제시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중등 학생 참여중심수업 활성화와 중등 영어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해'중등 영어 교수학습자료집 4종'을 개발해 학교에 보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수학습자료집은 온·오프라인 연계 영어교육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 중등영어교육지원단 교사들과 함께 기획하고 개발했다.

자료집은 총 4권으로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영어수업 자료인'블렌디드 영어 수업을 위한 도구'와 원서 읽기 도움 자료인'우리 학교 영어 원서 책장을 소개합니다', 38개의 수업 활동 나눔집인'품앗E 영어수업 활동 자료집', '세계시민교육 Start 영어수업으로 스며들다'이다.

시교육청은 자료집 보급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가치를 담은 주제통합형 영어 교수학습자료로써 학생들은 세계시민 역량을 함양하고 교사는 수업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블렌디드 영어 수업을 위한 도구'는 에듀테크(Edutech)를 활용한 다양한 게임과 활동을 담고 있으며 코로나 19시대의 협업과 토론을 위한 상호작용 도구와 온라인상에서의 과정형평가와 피드백을 위한 자료를 담고 있어 미래 영어수업을 위한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학교 영어 원서 책장을 소개합니다'는 세익스피어의 작품 맥베스와 팩트풀니스(Factfulness)원서를 활용한 학생 참여 수업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사피엔스(Sapiens) 원서를 이용한 토의 수업, 영어 원서를 활용한 동아리 활동 사례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학생 활동지와 교사용 수업 사례 등으로 구성해 학생들의 원서 읽기 지도를 위한 자료와 활동방안을 지원한다.

'품앗E 영어 수업 활동 자료집'은 38개의 학생 참여 중심 활동지를 제공하며 각 활동마다 활동 안내, 활동방법, 자료 활용 Tip 등으로 구성해 교사들이 수업개선을 위해 활용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담고 있다.

'세계시민교육 Start 영어수업으로 스며들다'는 세계시민교육 수업 연계 활동자료, 주제선택 수업 활동자료, 프로젝트 수업 활동자료, 창의적 체험활동 속 세계시민교육 자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등교육과 황재윤 과장은"이번 자료집 개발이 학교 현장의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영어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영어교사들과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활성화시켜 세계시민으로서 글로벌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영어 수업 개선을 통해 영어교육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현/기자

수성구여성단체협의회, 손수건사용하기 캠페인

대구 수성구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3일 수성못 일원에서 지구를 살리는 작은 습관 실천에 동참하고자 '손수건 사용하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등으로 일회용 티슈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 보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수성구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은 손수건 1,000장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지구를 살리는 작은 습관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홍보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일상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실천이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캠페인을 꾸준히 실시해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장동호/기자

경주시, 추석명절 대비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 홍보

경주시, 주민과 상인들에게 안전점검표 배부하고 내 집과 점포에서 전기·가스·소방 등 분야별 자율 안전점검 실시 독려

경주시는 지난 9일 성동동 일원에서 추석연휴에 대비해 '자율안전 점검 실천운동'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은 주택과 점포 등 소규모 시설의 관리인 등이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활동이다.

시는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 단체와 함께 경주역과 중앙상가, 성동시장 등지에서 안전점검표를 나눠주며 내 집과 점포에서 전기·가스·소방 등 분야별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독려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추석연휴 이전에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해 주기 바란다"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생활 주변 위험 요소 또한 안전신문고 등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달 28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과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들이 합동으로 노후위험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한반식/기자

안동시농업기술센터, 백두대간 자생씨앗 아름다움에 반하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9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관람시간 10:00~19:00)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3층 '갤러리 34'전시실에서 [백두대간 자생 씨앗 아름다움에 반하다]를 주제로 백두대간 자생식물의 씨앗 사진 전시회를 추진한다.

이번에 전시되는 사진은 총 60여 점이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시드볼트(Seed Vault)에서 보유 중인 씨앗을 SEM(주사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다양한 모양과 특징을 가진 씨앗의 흑백 이미지에 꽃 또는 열매의 색으로 채색하여 미적인 아름다움을 더한 작품이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많은 시민들이 식물 유전 자원의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씨앗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군위군'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현장접수 본격 시작

경북 군위군은 13일부터 관내 8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국민지원금의 현장 접수를 본격 시작했다. 추석 전 최대한 많은 대상의 군민들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현장 접수처를 마련하고 신속하고 원만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을 투입하여 차질 없는 지원금 접수를 하고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은 맞벌이 및 1인 가구 별도 특례기준을 적용해 '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별 합산액이 소득 하위 80%+α로 고액 자산가는 건강보험료 기준과 상관없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6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여 13일부터는 읍면행정복지센터와 금융기관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민지원금 신청과 지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군위군은 이번 국민지원금에 관해 전체 군민의 93%가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청 첫 주는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급수단은 선불카드와 신용·체크카드 충전 중 선택할 수 있다.

선불카드를 원하는 사람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사람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10월 29일까지이며 1인당 25만 원씩 지급받은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월 31일까지 군위군 관내에서만 사용가능하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신속 지원하고 지급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국민지원금이 주민들의 생활과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울릉군, 추석연휴 귀성객과 관광객 맞이 준비에 힘써

2021년 추석맞이 국토대청결운동 실시

울릉군은 9월 14일 오후 2시부터 지역주민, 기관·단체, 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울릉도의 관문인 여객선 터미널을 중심으로 관내 시가지와 해안변에 추석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추석맞이 대청소는 골목길 생활쓰레기와 해안변에 태풍으로 어지러워진 환경을 정비하였고 특히, 오는 28일 포항시 영일만항에서 본격 운항을 시작하는 울릉크루즈(주) 뉴시다오펄호의 첫 취항에 맞추어 사동항 주변에 각종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함으로써 명절을 앞두고 울릉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쉼이 되는 '청정 힐링 섬'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화활동에 참여한 모든 봉사자들이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국토대청결운동에는 관내 각급 기관에서도 함께 동참하였으며, 특히 울릉경비대원과 울릉군새마을지회, 여성단체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도 관광지 및 사동항 주변과 내수전 해안변 일대를 깨끗하게 청소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119안전센터와 울릉청년단에서는 울릉터널 물청소를 실시하고 골목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손님맞이 준비를 마쳤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한마음이 되어 지정구역 대청소에 참여해주신 주민들과 관내 기관단체에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울릉도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자연의 신비로움과 함께 '청정 힐링 섬'의 정취를 느끼며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내시고 가시기를 바란다."며 명절인사를 전했다.

김기현/기자

제12회 영천에서 경상북도 유림서예대전 개최

우수한 출품 400여 점 심사, 영주시에서 대상 나와

경상북도 향교전교협의회는 지난 12일 영천향교 국학학원 대강당에서 유림서예대전 심사를 개최했다.

올해 12회째를 맞은 서예대전은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전통문화를 전승·발전시키고자 경상북도 향교전교협의회 주관으로 경상북도, 경상북도향교재단, 영천향교, 영천시, 한국서도협회 경북지회 후원으로 개최됐으며, 출품 공모 부분으로는 서예(한글, 전서, 예서, 행초서) 문인화 삼체부 등 3개 부문으로 유교사상, 전통문화, 미풍양속과 관련된 출품 전시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대상에는 영주향교 고천 임치운씨의 한문 부분 신천자문이 당선됐으며, 최우수상에는 상주향교 문인화 부문 도곡 김명희씨, 우수상에는 자인향교 고동 송금목, 영천향교 오당 김학주, 경주향교 글꽃 박성희씨가 당선됐다. 그 외 특별상 5점, 삼체상 3점, 장려상 28점, 특선 76점, 입선 162점이 선정됐다.

조영철 경북향교협의회장은 "작년보다 훨씬 훌륭한 작품이 많이 나와 감사드리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대면으로 묵향과 휘호의 느낌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유림서예대전 수상작 및 초대작가 전시는 오는 10월 13일~17일 5일간 영천창작스튜디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장동호/기자.

목포 출신 도의원들, '전남도 유아 숲놀이체험원 설립' 적극 환영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목포 기대…
"노력과 지원 아끼지 않을 터"

전남도의회 목포 출신 6명의 도의원(전경선, 박문옥, 조옥현, 최선국, 이혁제, 최현주) 전원은 '전남도 유아 숲놀이체험원' 설립 업무협약과 관련,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과 목포시는 지난 15일 업무 협약식을 갖고 '전남도 유아 숲놀이체험원' 설립 사업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전남교육청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목포시에서 부지 제공과 행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2025년까지 1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돼 목포 입암산 일원에 7,063㎡ 규모의 실내·외 숲놀이 체험시설 등이 건립된다.

'전남도 유아 숲놀이체험원'에는 숲놀이 체험시설과 함께 ▲숲놀이 프로그램 연구·개발 ▲유아 숲놀이 프로그램 ▲주말 숲놀이 가족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돼 목포를 비롯한 전남의 소중한 유아들의 창의적인 미래역량을 키우고 가족들의 새로운 체험·휴식 명소가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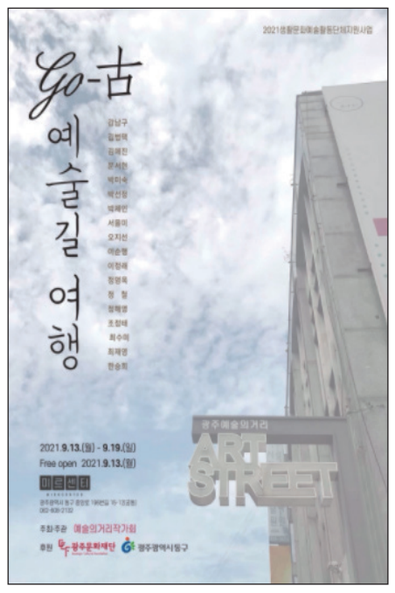
목포 출신 전경선, 박문옥, 조옥현, 최선국, 이혁제, 최현주 도의원은 "전남도 유아 숲놀이체험원 설립으로 유아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목포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명품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남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 도의원은 이어,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숲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전남교육청과 목포시의 모범적인 협업 사례"라며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장석웅 교육감님과 김종식 목포시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영안/기자

광주광역시 동구, 미로센터 예술의 거리 'GO-古 예술길'展 개최

19일까지… 작가회 20여 명 회원 참여 작품 선봬



광주 동구는 미로센터 1층 미로카페에서 '예술의 거리 작가회'가 기획·운영하는 'GO-古 예술길' 전시회를 오는 1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미로센터 미로테이블(민·관 거버넌스 협약단체) 단체 '예술의 거리 작가회'가 광주문화재단 예술동아리 지원사업에 선정돼 진행하는 전시다.

이번 전시는 'GO-古 예술길'이라는 주제로 정해영 회장을 비롯한 최재영, 강남구, 김병택, 조정태 등 20여 명의 예술의 거리 작가회 회원들이 참여하며, 예술의 거리에 있는 역사적 의미가 담긴 장소와 특색 있는 문화 명소들을 작가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미지화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예술의 거리는 호남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이자 예향 광주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거리로 지금도 작가 작업실, 갤러리, 공방, 표구사 등이 밀집해 있어 예술과 문화가 살아 있는 특색 있는 거리로 자리 잡고 있다.

정해영 회장은 "이번 전시는 전통(古)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진 예술의 거리를 작가의 시선으로 관찰하고 누비면서(GO) 기록하고 이를 화폭에 옮겨 담고자 했다"면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예술의 거리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전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예술의 거리 상가·상인, 작가들이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전시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심 속 문화예술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예술의 거리에 나오셔서 작가들의 눈으로 그려낸 예술의 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결성된 '예술의 거리 작가회'는 예술의 거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로 회화, 평면, 시각, 입체, 조각, 미디어, 도자,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군 4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예술의 거리 상가 및 지역주민들과 상생을 기반으로 매년 정기적인 전시회와 오픈스튜디오를 통해 예술의 거리를 찾는 일반시민에게 수준 높은 예술 경험을 제공하고 동구와 예술의 거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덕윤/기자

장성군, 489억 투입… 장산·안평리 재해 위험 없앤다

행안부 공모 최종 선정…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배수펌프장 신설 추진

장성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국비 포함 489억원을 확보해 서삼면 장산리와 장성읍 안평리 일대에서 '장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다.

서삼면 장산리와 장성읍 안평리는 저지대에 위치해 태풍이나 호우 발생 시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배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면 빗물이 원활히 배출되겠지만, 노후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서삼천과 구암천 등이 범람해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대상 구간이 넓고 농경지 등의 구획이 오래 전에 지정된 터라, 재해 방지를 위해서는 대규모 개선사업이 불가피하다. 해결책 마련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장성군은 올해 초 수 차례 주민 회의를 통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장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계획'을 수립, 행안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방하천 정비(2.7km) ▲소하천 정비(3.77km) ▲배수펌프장 4개소 신설 ▲우수관로 정비(1.67km) 등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장성읍 안평리~서삼면 장산리 일대 138세대 345명의 주민이 수해로부터 안전해진다. 부지 규모로는 시가지 10ha와 농경지 118ha가 재해 걱정을 덜게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이번 장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 선정은 지역민과 군 공직자가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해낸 거버넌스(민관합치) 성과"라면서 "안평~장산리 주민들이 수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재해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으며,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오홍곤/기자

곡성군, 추석맞이 전통시장 방역동참 및 장보기 캠페인 추진

다가올 추석을 맞이해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난 13일 기차마을 전통시장에서 생활 방역 동참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발열체크,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소규모로 진행됐다. 곡성군은 안전한 전통시장 이용을 위해 상인들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 생활방역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특히 전통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마스크와 방역준수 홍보물을 배부하며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곡성군은 캠페인을 통해 추석 연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타 지역 방문 및 친척모임 자제 등 기본방역 수칙을 주민들이 적극 준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날 캠페인과 함께 곡성심청상품권을 이용한 장보기 행사도 진행됐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상인들을 위로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앞으로도 22일까지 각 부서별, 유관기관, 단체별로 전통시장 장보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방문객들에게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곡성심청상품권 적극 사용을 홍보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추석 성수품 가격동향 파악 및 물가 지도 점검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 생활방역을 적극적으로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추석명절 성수품 등을 구매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상홍/기자

고창군, 생태계 교란 덩굴식물 집중 제거

고창군은 나무의 건전한 생육환경 조성과 산림경관 개선을 위해 다음달까지 주요 도로변과 조림지 등에서 덩굴류 집중 제거작업을 진행한다.

군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덩굴식물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주변의 고유 수목과 수풀을 뒤덮어 햇빛을 차단해 고사시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실제 산림청의 지난 7월 전국 칡덩굴 분포 현황 조사 결과, 칡덩굴에 의한 피해 산림이 약 4만5000ha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피해 면적이 매년 증가되는 등 지속적인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덩굴류 집중 제거 대상지는 조림지와 생활 가시권 산림을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투입해 진행되며 덩굴제거의 가시적 성과 달성을 위해 지상부 덩굴 걷기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고창군청 산림공원과 관계자는 "아름답고 건강한 숲을 가꾸고 쾌적한 고창군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숲을 망치고 경관을 저해하는 덩굴류에 대한 제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영암군,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자격 취득 지원

직업 체험과 연계 대상자 만족도 증진

영암군장애인복지관은 발달장애인 6명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정을 마치고 지난 9월 10일 시작으로 지역 내 카페에서 월 2회 실전 연습에 들어갔다.

이번 바리스타 자격증반 수업은 발달장애인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1년 과정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참가자들이 자격증 취득 이후 직업현장으로 나아가도록 도움을 주고자 영암 기찬랜드에 있는 『해피맘카페』와 연계하여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실습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발전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더 많은 장애인들이 교육을 통한 새로운 활동영역을 구축하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 프로그램 참여가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안/기자

강진 청정 표고버섯으로 건강함을 그대로 담아 선물하세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강진읍 부춘리 청자골강진표고는 주문받은 예약 물량을 맞추기 위해 여념이 없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자랑하는 청정강진에서 생산되는 강진표고버섯은 맛과 영양으로 이미 소비자들에게 인기 상품이다.

박진천 대표는 9년 전 귀농하여 빠른 기간에 안정을 찾고, 이제는 타지역 버섯 재배농업인들이 먼길마다않고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오는 등 선진농업인이다.

특히 청자골강진표고 농장은 생표고버섯 뿐만 아니라, 건표고, 표고가루, 표고버섯차 등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지속적인 상품개발을 통해 명실상부 강진대표 표고버섯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표고버섯은 봄, 여름, 가을에 걸쳐 참나무, 서나무, 밤나무 등 활엽수의 죽은 나무나 죽은 가지에서 자라며 예로부터 맛이 뛰어나 송이, 능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3대 주요 식용버섯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식으로도 전혀 손색없는 표고버섯은 단백질과 지방질, 당질이 많이 포함돼 있으며 비타민B1과 B2, 나아신을 함유하고 있다. 또한 면역력을 높여주는 베타글루칸과 암세포 증식을 저해시키는 레티난성분이 다량 포함됐으며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을 낮춰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시키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있다.

강진 친환경 표고버섯 주문 및 구입 문의는 청자골강진표고, 청림농원, 청자골좋은버섯, 또는 강진초록믿음 또는 쇼핑몰에 문의하면 된다.

김장길/기자

여수시, "배달업체 소음 저감" 아파트연합회 주관 상생협의회 참여

여수시·여수경찰서·(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사)한국배달라이더협회 '맞손'

여수시가 지난 10일 오후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회의실에서 열린 '배달업체 소음 저감 노력을 위한 상생 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여수시지회(양창승지회장) 주관으로 (사)한국배달라이더협회 여수시지부 임원을 비롯한 여수시, 여수경찰서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여수시지회(양창승지회장)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음식 배달 증가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륜차의 괴음 등으로 인해 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이번 상생 협의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안건으로 아파트연합회에서는 일부 아파트 배달 불편사항 등을 수렴하였으며, 배달라이더협회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불필요한 괴음 등을 자제하여 생활환경조성에 일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여수시와 여수경찰서에서는 소음 민원 근절을 위한 불법개조, 소음기훼손 등 이륜자동차 위법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에 따라 배달라이더협회에서 이륜차 정비 등을 통해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여수시에서는 "2022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시 소음 저감을 위해 배달업체 우선지원과 배터리 추가 보급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배달라이더협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일/기자

군산문화재야행(夜行), 근대문화유산을 느끼는 색다른 추억 선사

30여가지 다양한 대면·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성황리에 마쳐

군산만의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야간형 문화향유 컨텐츠로 큰 호응을 얻은 '군산문화재야행(夜行)'이 지난 9~11일, 3일간에 걸쳐'근대문화유산 빛의 거리를 걷다'라는 주제로 현장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군산문화재야행(夜行)'은 문화유산 향유사업으로 근대 역사문화유산이 밀집된 군산 내항 및 원도심 일원에서 문화유산을 활용한 8가지 야간형 테마를 주제로 30여가지의 다채로운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관람객들에게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재미를 선사했다. 특히 지역예술인들이 직접 공연하는 등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여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개막식·개막공연 생략, 공연 프로그램 무관중 생중계 운영, 체험프로그램 온라인 전환 등 대면프로그램의 비중을 축소하고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을 확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행사를 진행했다.

'야행맨이 간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내가 보고 싶은 문화재와 프로그램을 행사장에 직접 가지 않고 야행맨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하여 즐길 수 있어서 색다른 추억이 되었다"고 전했다.

채왕균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군산문화재야행을 통하여 장기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심신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군산문화재야행이 전국 최고의 야간형 문화향유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1일까지 치러진 현장 프로그램 이외에도 '군산문화재야행 N행시 대회', '내가만든 문화재교구 뽐내기'등의 일부 온라인 프로그램은 오는 17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군산문화재야행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에서 공연 영상, 문화재해설 및 VR·AR체험등은 상시 체험이 가능하다.

김현태/기자

전북도, 추석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응 비상근무

전북도, 9.18. ~ 9. 22. 기간 산불대응 태세 유지

전북도가 추석 명절 기간 성묘객 등 입산자에 의한 산불발생에 대비하여 특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한다.

전북도는 14일 추석 명절 기간 성묘, 가을철 임산물 채취 등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8일부터 22일까지를 추석 명절 산불방지 특별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성묘객들에 의한 벌초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행위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있고 가을철 입산객에 의한 버섯, 밤, 산약초 채취 등의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예방 및 임산물 무단 채취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사전 계도 및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공원묘지, 사찰 주변 등 성묘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산불과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계도 ·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산불발생 시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방지 및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북도 박성호 산림녹지과장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추석 명절에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 도민이 산불조심에 각별히 관심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김송일/기자

"감성여행도시 완주, 사진과 시로 표현해 주세요"

"가을이 익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감성여행 도시 완주를 사진과 시(詩)로 표현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법정 문화도시' 완주군이 올해와 내년도 완주 방문의 해를 맞아 적지 않은 금액의 시상금을 내걸고 '감성여행도시 완주 디카시 공모전'을 개최한다.

최근 신조어인 '디카시'는 디지털카메라와 시(詩)의 합성어로, 창작자 본인이 촬영한 사진에 시를 덧붙인 창작물을 말한다.

이번 공모전은 완주군의 역사와 문화, 축제, 관광자원 등 완주만의 매력이 담긴 사진을 직접 찍고, 그 사진 속에 담긴 의미를 더욱 돋보일 수 있는 창작시를 덧붙여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참여대상은 초등학생 이상 전 국민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응모참여는 완주군 홈페이지와 '완주여행의 모든 것'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창작한 작품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작품은 사진 한 장당 4~10줄 이내의 시적인 문장을 표현해야 하며, 1인당 작품 3점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접수는 다음달 8일부터 11월 8일까지 한 달간이며,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누어 주제적합성과 독창성, 홍보자료 이용가치 등의 평가기준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총34점의 우수작을 선정해 총80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향후 선정된 우수작품을 SNS 등 온라인 홍보와 간행물, 홍보물 제작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작품들을 판넬로 제작하여 완주관광 순회 전시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왕미녀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완주의 소소한 매력적인 문화관광 자원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된다"며 "가을이 익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숨겨진 보물 같은 완주로 지친 일상을 쉬어가는 감성여행을 계획해 보시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유진섭 시장 비롯 정읍시 공무원, 13일 신태인시장에서 추석 장보기

구입 물품 복지시설에 기부, 17일까지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 행사 추진

정읍시가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정읍시 공무원들은 지난 13일 신태인 전통시장을 방문해 추석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유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부진과 대형마트 등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 · 격려하고 시장을 방문한 고객들과 덕담을 나눴다.

이어 미리 구매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역 농산물과 추석 명절에 사용할 제수용품, 생필품 등을 구매했다.특히 장보기 행사를 통해 구입한 물품들은 노인·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전달했다.

시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7일까지를 전통시장 활성화 기간으로 정하고 온누리 · 정향누리 상품권을 활용한 장보기 운동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장보기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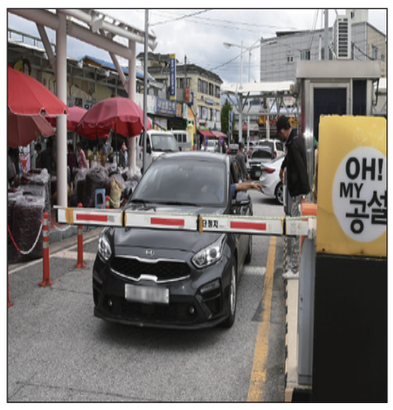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시장 내 방역소독과 위생관리 등 코로나19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며, "상인들께서도 기운을 잃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남원 공설시장 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구축한다

2022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



남원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2022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8500만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설시장 공영주차장은 2011년에 조성돼 주차면수 110대 규모의 월 3천여명이 이용하는 곳으로, 주차권 발권 시 대기시간이 길고 현금 결제만 가능해 고객 불편이 지속됐던 곳이다.

시는 주차장에 무인정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들의 주차장 진·출입 편의성 향상 및 신용카드·현금·페이 등 결제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주차관리 서버를 통한 명확한 주차장 이용 통계관리 및 투명한 매출관리를 통해 주차장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환주 시장은 "공설시장 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향상하여 공설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유성구, 2021 유성 유튜브 영상 공모전 개최

대전 유성구는 9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참신한 영상 콘텐츠 발굴을 위한 '2021년 유성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유성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주제(여행, 역사, 문화, 체험 등)로 패러디와 뮤직비디오, 브이로그 등 형식에 관계없이 1분 이상 5분 이내의 직접 제작한 동영상이면 출품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제작한 동영상 파일과 참가신청서를 작성,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11월중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 1편(150만원)과 우수 1편(80만원), 장려 1편(50만원), 입선 3편(10만원)을 선정할 계획이며, 수상작은 구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 채널과 구청사 로비에 송출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지친 대전 시민은 물론 국민들에게 유성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며 "톡톡 튀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유성만이 가진 특색을 잘 표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성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홍보실로 문의하면 된다.

김원호/기자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천호지 공원 모니터링 실시

박상돈 천안시장과 공원 내 공공시설 성인지 관점 현장 점검

박상돈 천안시장이 지난 13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천호지 생활체육공원 공공시설에 대한 성인지 관점 안전모니터링에 참여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천안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 성평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수립될 수 있도록 점검 및 건의하는 등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박 시장과 시민참여단은 윤금이 성평등 전문관의 '공원 내 공공시설 모니터링 방법'을 청취한 후, 2개조로 나누어 공원내 공공시설과 산책로에 대한 안전성, 접근성, 편의성, 쾌적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산책로를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의 시각에서 이용에 불편은 없는지 개선 할 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등 꼼꼼하게 현장을 둘러보며 점검하는 활동을 펼쳤다.

앞으로 시민참여단은 점검한 결과를 토의를 통해 개선 사항을 도출한 뒤 사업 추진 부서로 전달해 여성친화적 관점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공원 내 안전성과 편리성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해준 시민참여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적극 반영해 누구나 올 때마다 편안한 천안의 자랑거리이자 대표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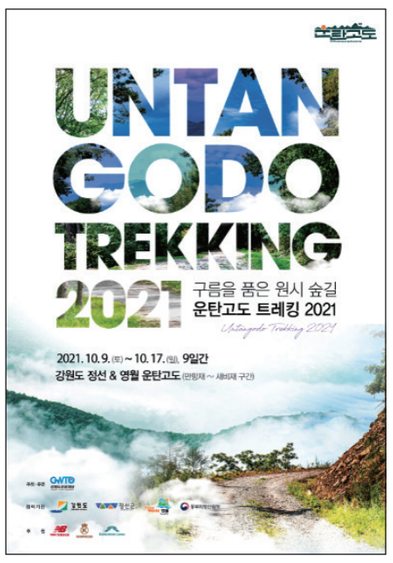
한편, 천안시는 야경이 아름다운 곳으로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천호지에 대한 '천호지 수변경관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실시하고 내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최정근/기자

구름으로 둘러싸인 신비의 강원을 걷는다, '운탄고도 트레킹 2021' 개최

해발 1,330m 고원 비대면 개인 트레킹

참여, 9월 18일부터 선착순 999명 모집



강원도관광재단은 내년 5월에 본격 개통하는 '운탄고도'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구름을 품은 원시 숲길, 운탄고도 트레킹 2021' 사업을 10월 9일부터 10월 17일(9일간 매일 111명 개인 트레킹 진행 기준)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와 폐광지역 4개 시군이 동부지방산림청과 함께 개발한 '운탄고도'는 석탄을 나르던 길을, 백두대간을 횡단하는 명품 트레킹 코스로 만든 것이다. 특히 영월 청령포, 정선 만항재, 태백 황지연못, 삼척 미인폭포 등 폐광지역 4개 시·군을 대표하는 관광지와 숲길 등 지역별 명소 감상이 가능하다.

이번 행사는 영월, 정선, 태백이 만나는 '만항재'를 출발하여 도롱이 연못(14.2km)에 도착하는 기본 코스와, 정선 '새비재'까지 전체 거리 32km 구간을 완주하는 장거리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완주한 참가자 전원에게는 뉴발란스에서 제공하는 완주기념 선물을 제공하며, 특별 이벤트로 켄싱턴리조트앤호텔에서 제공하는 숙박권을 추첨을 통해 지급한다. 또한 기본 코스를 이용한 참가자는 강원랜드에서 운영하는 하이원탑 곤돌라를 무료 이용이 가능하고 하이원리조트 운영시설을 할인해서 방문할 수 있다.

본 행사는 산을 사랑하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9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운탄고도 공식홈페이지에서 선착순 999명을 대상으로 사전접수를 받는다. (홈페이지 정식 오픈 시각은 전날 9월 17일 18시 예정) 참가비용은 코스별 각각 기본 1만원, 장거리 2만원으로, 모집된 비용은 폐광지역 산림복지를 위해 쓰일 계획이다.

강원도관광재단 박정현 관광콘텐츠팀장은 "이번 트레킹 행사는 '집콕' 생활을 잠시 벗어나, 해발 1,330m 고원지대를 따라 천혜의 자연이 수 놓은 아름다운 원시 숲길을 비롯해 백두대간의 웅장한 절경이 끝없이 펼쳐지는 신비한 탐험로를 경험할 좋은 기회다."라고 전하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운탄고도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예산군,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식 가져

예산군은 지난 13일 예산읍 관작리, 신양면 서계양2리, 광시면 대리마을회관에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선정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황선봉 군수, 이승구 군의회 의장, 방한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지역 군의원, 읍·면장을 비롯한 각 마을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우수마을로 선정된 광시면 대리마을 윤병묵 이장은 황선봉 군수로부터 산림청장 표창장을 전수 받았다.

관작리, 서계양2리, 대리는 봄, 가을철 일체의 소각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서약 및 참여로 소각행위 근절 및 산불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한 결과 한건의 불법 소각행위도 발생하지 않아 이번에'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됐다.

황선봉 군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 불법소각 행위 일체 근절로 산불발생 ZERO화와 산림자원을 지키는데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는 봄철 농촌지역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불법소각 행위라는 점에 착안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아래 이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이다.

고정화/기자

단양군,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지원

녹색쉼표 단양군이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사업비 4억1000만원을 투입해 107대 차량에 매연저감장치(DPF)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신청자는 군청 누리집 공고를 확인한 후 군청 환경과 기후대기팀으로 저감장치 부착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신청서류를 제출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로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단양군으로 등록된 자동차,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연속으로 6개월 이상인 차량, 의무장착기간(2년)을 고려해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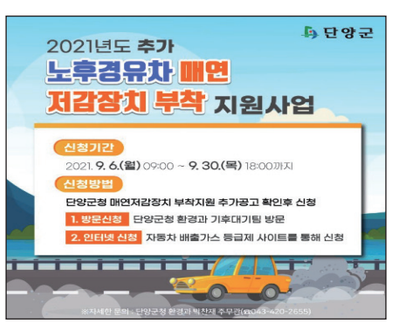
또한,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금이 없는 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요건에 적합한 자동차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연식에 따라 최소 327만원에서 최대 696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10~12.5%의 자기부담금이 발생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소유한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 배출가스 저감 사업 확대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철원군 산림청 "산림소득 유통분야"공모사업 첫 선정

철원군 임산물 잣 가공과 유통활성화에 청신호

철원군은 산림청에서 주관한 '2022년도 산림소득 유통분야 공모사업'에 처음으로 선정돼 6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철원군은 임야면적이 5만9,796ha로 전체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소득사업을 전혀 소득화하지 못하고 철원 에서 생산되는 잣의 대부분이 가평이나 홍천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철원군의 임산물인 잣 가공과 유통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산림소득 유통분야 공모사업은 영농조합·농업회사 등 생산자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물의 수집·저장 및 유통체계의 현대화·규모화를 지원 하는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된 두루미 잣 영농조합법인 황성종 대표는 "그간 정부의 지원 없이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이번 선정으로 임산물 가공산업에 보람을 느낀다"며, "소득의 일부는 지역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히며 지난 8월 말 철원군 장학회에 장학금을 기부한 바 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이번 산림소득 유통분야 공모사업이 어렵게 선정된 만큼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철원군 임산물 잣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임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나/기자

예산군, 추석맞이 내포신도시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 추진

예산군 내포문화사업소는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 및 지역민을 위해 내포신도시 제초작업을 실시한다.

이번 제초작업은 내포신도시 내 공원과 녹지, 도로 등 내포신도시 전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제초면적은 총 33만8160㎡다.

특히 보도구간 및 산책로와 공원·녹지 등을 대상으로 집중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추석 전까지 완료해 안전한 도로환경과 깨끗한 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소는 내포신도시 제초작업을 연중 지속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아파트 준공과 주민 입주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제초작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게 될 전망이다.

내포문화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제초작업은 명절에 내포신도시를 찾는 귀향객과 방문객에게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심어주고 지역주민에게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된다"며 "앞으로도 상시 유지관리를 통해 누구나 찾고 싶은 내포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황경식 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 도서 기증 특별 강연

중천철학도서관이 원주시에 희귀 서양 철학도서 5,070권을 기증한 황경식 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듣는 시간을 마련한다.

도서 기증자 황경식 명예교수는 '존 롤스 정의론', '내 아이를 위한 인성수업' 등 다수의 도서를 집필했으며, 대한민국 철학계의 대표 석학이자 정의론 및 덕 윤리의 권위자로 불린다.

'정의로운 나라와 실행의 역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장서 기증식과 함께 진행되며, 참가자는 14일 오전 9시부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한편, 5,070권 가운데 동양철학 중심의 중천철학도서관에는 국내 서양철학 도서 중심으로 1,000권이 기증돼 동·서양 철학 장서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됐다.

또한, 국외 철학도서 4,070권은 중천철학재단에 전해져 철학 전문가의 학문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시민들이 '정의론'에 관한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수원시, 14일 '수원시 ICT 융합 혁신클러스터 운영위원회' 발대식 개최

ICT 융합기술을 활용해 수원시에 특화된 스마트시티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원시 ICT 융합 혁신클러스터 운영위원회가 첫발을 내디뎠다.

수원시는 지난 14일 오후 3시 공항협력국 시민협의회 사무실에서 '수원시 ICT 융합 혁신클러스터 운영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7월 수원시정연구원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ICT 융합 분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ICT 융합기술을 활용해 교통과 환경 등 도시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실증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성된 수원시 ICT 융합 혁신클러스터 운영위원회는 ICT 융합 혁신클러스터 구축에 나선다. 운영위원회에는 수원시를 비롯해 ETRI,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연구기관은 물론 학계(아주대학교)와 공공기관(LH), 민간기업 등이 참여한다.

수원시 ICT 융합 혁신클러스터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수원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신사업을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수원시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한 서비스맵 작성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지자체 현안 관리 ▲주변 인근 도시와 연계된 도시 발전 연구 등이 포함된다.

특히 운영위원회는 스마트도시 컨설팅 용역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민간 전문가와 함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 말까지 각종 공모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양경환 스마트도시과장은 "수원시에 특화된 정책·사업을 발굴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 도시'를 구현함으로써 교통·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이 스마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성북구 장위 전통시장, 라이브 커머스로 비대면 장보기 지원

성북구 전통시장에서는 시장에 오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명절음식을 준비할 수 있다.

지난 11일 추석을 열흘 앞두고 장위 전통시장에서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됐다. 시장 상인들이 직접 출연해 좋은 상품 고르는 법 등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공개하며 소비자를 잡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경쟁을 벌였다. 직접 매장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실시간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생생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승로 구청장도 과일 판매 지원군으로 직접 나서 눈길을 끌었다.

남재호 상인 회장은 "장위 전통시장은 '100년 손님, 100년 맞이'를 모토로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 저렴한 가격,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장위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줄 것을 호소했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청한 장위동 주민은 "판매자 설명을 듣고 신선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바로 주문할 수 있어 편리했다. 게다가 비대면이니 코로나 걱정 없는 안전한 쇼핑도 가능하다"면서 "전통시장 라이브 방송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 전통시장도 이런 최신 플랫폼을 도입해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라이브 커머스는 성북구가 지난 3월 선정된 서울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구는 오는 23년까지 서울시로부터 약 80억원을 지원받아 전통시장과 연계한 장위동 일대 골목상권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장위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은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과 전통시장을 연계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승로 구청장은 "코로나19와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에 발맞춰 우리 전통시장에도 실시간 비대면 쇼핑이 가능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이 구축돼 상권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이번 실시간 온라인 판매행사를 통해 편리하게 명절 준비하시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장위동 일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위 전통시장은 당분간 온라인에서 10%할인 및 '하나만 사도 무료배송'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이번 라이브 커머스를 주관한 장위 전통시장 현장지원센터는 "오는 11월 김장철을 맞이해 '김장 맞이 라이브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성원/기자

제주도, 도쿄 패럴림픽 메달리스트 이동섭 선수에게 포상금 지급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14일 오후 소통회의실서 이동섭 선수 만나 격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청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창단 이래 패럴림픽에서 최초 메달을 획득한 이동섭 선수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격려했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14일 오후 1시 30분 소통회의실에서 2020 도쿄 패럴림픽에서 배드민턴 은메달(복식)과 동메달(개인단식) 등 총 2개 메달을 획득한 제주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이동섭 선수를 만나 격려의 말을 전하고 포상금 1200만원을 지급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동섭 선수가 제주도청 소속으로 제주의 위상을 높여줬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도민과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며 "특히 도내 장애인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는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도쿄 패럴림픽 대회에는 제주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으로 3명(이동섭, 강정금, 신경환)의 선수가 출전했으며, 이동섭 선수는 2011년 2월 제주도청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창단 이래 패럴림픽에서 최초로 메달을 획득한 주인공이 됐다.

또한 이동섭 선수는 제주도에서 지급하는 포상금 외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포상금 6000만원 및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최재은/기자

류경기 중랑구청장, 추석맞이 전통시장 현장 살펴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관내 전통시장 7개소를 찾아 현장을 살피고 상인들을 격려하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전통시장 방문 첫날인 14일 오후에는 장미제일시장과 동부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지도 꼼꼼히 챙겼다.

구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3월부터 매월 1회 시장방문을 독려하는 '전통시장 가는 날'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 추석에는 오는 18일까지 제수용품 할인판매, 상품권 증정행사, 경품추첨 등 7개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명절 이벤트를 진행해 시장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즐거움과 혜택을 줄 예정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추석명절 전통시장을 방문해 질 좋은 제수용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따뜻한 인심도 함께 나누시기 바란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장에 다시 활력이 넘치도록 이번 명절준비는 중랑구 전통시장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울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21년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

'울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2021년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우수프로그램 부분 '금상'을 수상했다

울산시는 '울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관으로 9월 10일 개최된 '2021년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울산지역 학교밖청소년들로 구성되어 활동해 온 창업지원 프로그램 '늘꿈컴퍼니'가 우수프로그램 부분 금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늘꿈컴퍼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현수막, 배너, 카드뉴스를 직접 디자인하여 판매하는 창업프로그램으로 단순 수작업과 플리마켓 참여에서 발전하여 사업자등록과 네이버 스토어에 입점하는 등 실질적인 창업을 이루었다는데 주목을 받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청소년들에게 진학, 취업으로만 인식되어 오던 진로의 방향에 창업의 길도 있음으로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학교밖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에는 총 5개소(시,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개인상담, 학업복귀지원, 자립준비지원, 창업지원, 급식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되고 있다.

김기현/기자

정헌율 익산시장,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위문·격려'

정헌율 익산시장이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훈훈한 이웃의 정을 함께 나눴다.

정 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와 위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14일 일시청소년 쉼터를 시작으로 예담(장애인복지시설), 시온육아원(아동양육시설), 아가페정양원(노인양로시설) 등 총 4곳을 방문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인들을 내 가족처럼 돌보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최소인원만 방문해 시설 종사자·이용자들과의 접촉을 줄이는 방향으로 위문이 진행됐다.

정헌율 시장은"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며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훈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선수/기자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 추석 전 어시장 방문 소상공인 위로

경상남도의회 김하용 의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진해 용원어시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상인과 시장 이용객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14일, 진해 용원어시장 방문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시장 상인 위로

진해 용원어시장은 다양한 해산물과 싱싱한 활어회를 싼값에 판매하는 시장이지만 대형마트의 발전과 코로나19의 여파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의장은 시장을 둘러보며 먹거리를 직접 구매하면서 상인, 이용객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눈 후 김행규 상인회장과 손원실 부경신항수산업협동조합장 등 상인들과 함께 시장 안 상점을 돌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시장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상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김하용 의장은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어시장을 만들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어시장은 우수한 품질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므로 추석을 앞두고 많은 도민들이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광남/기자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장관 최우수상 수상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가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

15일 부평구에 따르면 구 노인인력개발센터가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평가' 사회서비스형 부문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지난해 실시한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평가'에서도 공익활동형 부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한 이번 평가는 전국의 수행기관 1천291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구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전국의 사회서비스형 504개 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꼽혔다.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올해 현재 34개 사업(공익활동형 21개, 사회서비스형 5개, 시장형 7개, 취업알선형 1개)을 추진해 총 3천524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주귀연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센터 직원들과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매년 수고하는 직원들과 참여 어르신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광명문화재단 기형도문학관, 2021 창작시 공모전 "어느 푸른 저녁" 개최

(재)광명문화재단 기형도문학관은 2021년 기형도문학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창작시 공모전 "어느 푸른 저녁"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시인 기형도를 기념하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청춘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예비 작가들을 발굴하고자 진행된다.

공모전 "어느 푸른 저녁"은 휴학생을 포함하여 전국의 미등단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또한, 예심과 본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기형도 시를 주제, 모티브로 한 창작시를 이메일로 접수하고(예심), 기형도문학관 방문 백일장으로 진행되는 본심에선 당일 발표되는 시제어로 창작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단, 현장 진행이 예정된 본심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의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다.

공모전에서는 예심을 통과한 본심 백일장 참여자 중 심사를 통해 총 5명을 선정하고 시상한다. 시상 내용은 ▲대상 1명(상장 및 상금 200만원), ▲금상 1명(상장 및 상금 150만원), ▲은상 1명(상장 및 상금 100만원), ▲동상 2명(상장 및 상금 50만원)이다. 대상 수상작은 수상과 더불어 문학 계간지 파란에 심사평과 함께 실릴 예정이다.

예심 접수기간은 9월 13일 월요일부터 10월 16일 토요일 18시까지며 출품신청서를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기형도문학관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하다.

최만식/기자

경기도, 15일부터 '202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관람 사전 예약

10월 1일 개막할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온라인 통해 전시 관람 사전 예약 진행

경기도가 10월 1일 '202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개막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관람 사전 예약을 시작한다.

격년 개최로 1991년 시작해 11회를 맞은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국내 대표 도자 전시 행사로, 올해는 코로나19로 현장 전시 관람 인원을 제한하기 위해 사전 예약을 실시한다.

관람을 원하는 인원은 비엔날레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전시 관람도 할 수 있다. 비엔날레 홈페이지에서는 모든 전시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현장 관람은 10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행사장별로 경기도자미술관(이천)은 1일 5회, 경기도자박물관(광주)과 경기생활도자미술관(여주)은 1일 7회 운영한다. 관람 시간대 1회당 제한 인원은 행사장별로 이천 120명, 광주 80명, 여주 65명이다. 시간대별 사전 예약 인원을 제외하고 잔여분이 있으면 현장 방문 관람할 수도 있다.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은 코로나19로 지친 관람객을 위로하기 위해 1991년 이래 최초로 입장료 무료를 결정했다. 70개국 1,184명의 작가가 참가한 국제공모전, 한국·네덜란드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국가초청전, 청화백자특별전, 어린이들을 위한 도자전시 등을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전시뿐만 아니라 국제영상공모전, 국제공모전 대중상 온라인 투표, 도자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도자의 역할과 의미를 짚어볼 수 있도록 했다.

김영태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202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현장 전시 관람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사전 예약을 하고 행사장을 찾으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성공보다 성장' 제주청년이 그리는 '업글 청년'

도, 9월 18일 '2021 제주청년의 날' 행사 온·오프라인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2021 제주청년의 날'행사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제주청년의 날은 '업글청년'을 주제로 진행된다.

'업글청년'은 성공보다는 성장을 위한, 오늘보다 업그레이드된 내일을 위한 청년의 목소리를 의미하며, 자기계발형 사람을 뜻하는 '업글 인간'에서 가져 온 '업그레이드 청년'의 줄임말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의 변화를 극복하고 있는 청년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청년활동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주 청년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자리로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들에게 더 많은 성장의 기회,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단계에서부터 청년이 함께하고, 청년팀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참여·운영하게 된다.

또한 제주 청년홍보단을 구성해 SNS 등을 통해 청년이 청년에게 홍보하게 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청년포럼, 청년문화, 청년교류, 부대행사 등이다.

청년포럼은 청년지원사업인 체인지메이커 아카데미와 청년반상회와 연계해 슬기로운 금융생활·제주살이 등에 대한 특강과 미니포럼으로 진행된다.

청년문화는 코로나19 시대의 청년 일상과 제주청년 아티스트에 대한 전시회, 청년목관 5중주 및 청년연극 공연으로 꾸며진다.

이외에 참여자 간 네트워킹을 위한 청년 교류, 청년 디지털캐리커처, 희망트리, 천연비누 만들기 등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청년의 날'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제주청년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방송으로 만날 수 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 "업글청년과 같이 제주 청년이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강릉국제영화제, 제6차 임시 이사회 개최하며 영화제 본격 준비 추진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는 14일 오후 2시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21년 제 3회 강릉국제영화제 세부 프로그램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고 세부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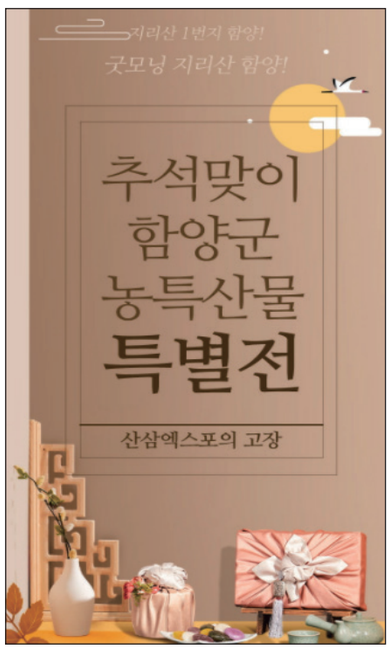
제3회 강릉국제영화제는'영화&문학','마스터즈&뉴커머즈','강릉, 강릉, 강릉' 3가지 키워드의 영화들로 구성되며 영화 상영 외에도 각종 다채로운 행사들로 관객들을 찾는다.

개최기간은 10월 22일부터 열흘간이며 강릉아트센터, CGV강릉,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강릉대도호부관아 등 강릉시 일대에서 진행된다.

이번 영화제의 개·폐막작과 섹션별 작품, 주요행사를 30일 기자회견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이등원/기자

함양군 농특산물, 최대 48% 추석맞이 특별 할인



함양군은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함양상림공원과 대봉산 일원에서 펼쳐지는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개최를 기념하여 9월, 10월 2개월간 티몬에서 추석맞이 함양군 농특산물 특별 할인전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할인전은 지리산 청정골 함양에서 생산되는 산양삼, 꿀, 흑돼지 외 가공제품 등 219종의 깨끗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최대 48% 할인된 가격으로 티몬을 통해 소비자들을 찾는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번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를 기념하여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명품 농특산물을 온·오프라인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시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영양군, 추석맞이 영양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추진

영양군은 민족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코로나19로 침체된 시장경제 회복을 위해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부서별로 소규모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17일까지 추진한다.

올해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에서는'영양사랑상품권'구입 및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각 부서별, 기관별 소규모 장보기를 추진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내 기관 관계자들은 추석 전 영양전통오일장을 맞아 영양전통시장에서 함께 장보기 행사 및 상인과의 대화를 가졌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상인과의 대화를 통해"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버텨주시는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통시장이 오늘처럼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군민들께서 추석 명절 품질 좋고 값도 저렴한 영양전통시장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세기/기자

군산 가을의 길목에서 만나는 비올라 & 피아노 앙상블 하우스콘서트

저녁 바람이 가을임을 느끼게 되는 9월! 군산예술의전당에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으로「Viola 이한나 & Piano 일리야 라쉬코프스키」하우스 콘서트를 오는 29일 19시 30분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하우스 콘서트는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연주를 관객들이 무대 가까운 객석에 앉아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실력파 Viola 이한나와 Piano 일리야 라쉬코프스키의 하모니

형식으로 매니아층이 두텁게 형성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무대에는 칼리치 스트리 콰르텟, 금호 아시아나솔로이스츠 등의 앙상블 멤버로 활약함과 동시에 솔리스트로서 대체불가 비올리스트로 자리매김한 이한나와 러시아인 피아니스트로 해외 유명 콩쿠르에서 1위의 기록을 가진 일리야 라쉬코프스키(현 성신여대 교수)의 완벽한 앙상블의 무대를 관람 할 수 있다.

하우스 콘서트는 문화가 있는 날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주최하고 군산예술의전당에서 주관한다. 전석 무료로 운영되나 비대면 티켓운영을 위해 티켓링크를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공연장 방역 및 관객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태/기자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온라인 공연장 운영

추석연휴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만남

전라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이 15일부터 '온라인 공연장'의 막을 열고 관람객을 맞이한다.

'온라인 공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제한된 지금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공연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됐다.

어린이창의체험관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샌드아트 등 총 4가지 공연을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다.

빛과 모래를 이용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샌드아트, 과학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과학마술', 다양한 모양의 비눗방울을 감상할 수 있는 '버블아트', 그림자들의 이야기 '그림자인형극'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정호 어린이창의체험관장은 "코로나 단계 격상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관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해 안타깝다"며 "온라인으로나마 어린이들이 즐겁게 관람하여 즐거운 추석연휴를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송일/기자

김영록 지사, "낙후 만회, 국고 8조 시대 총력"

정기국회 예산·민생법안 처리 노력…친환경선박산업 메카 육성 강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4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고예산 확보와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 국고 8조 시대를 활짝 열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올해 정부예산안에 7조 5천131억 원을 반영, 많이 확보했지만 낙후를 만회하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신안 추포~비금 연도교 등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과 예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되도록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혼연일체가 돼 뛰어주길 바란다"며 "특히 김치생산전문단지의 경우 도가 제안해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타 시·도에서 유치를 바라고 있는 만큼 지역에 유치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소멸위기지역특별법'도 제정되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K-조선' 비전선포에 따른 친환경선박 분야 메카 육성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근 대통령께서 고부가·친환경 선박 중심의 세계 선박시장 시황 회복을 계기로 세계 1등 조선강국 실현 비전을 선포했다"며 "이에 편승, 그동안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 중소형 선박수리 지원센터 구축, 해경서부정비창 신설 등 조선산업에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온 것을 바탕으로 전남 서남권이 친환경선박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서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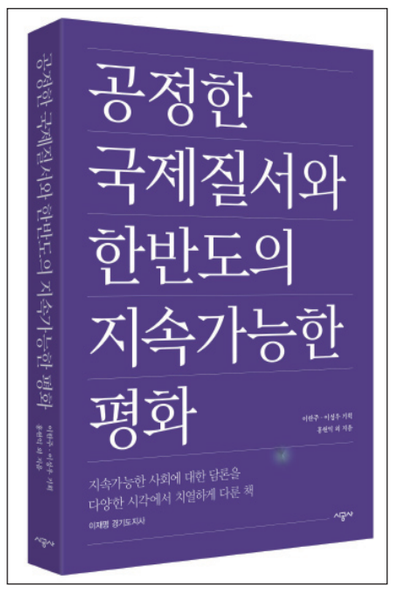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와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P4G 서울정상회의 때 유치를 천명한 후 최근 몽골과 온라인 화상 정상회의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관심을 갖고 있고, 외교부에서도 태국과 라오스, 파키스탄 등에 지지요청을 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개최지를 결정하는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 COP26 회의에 참석해 홍보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또 "올해 추석은 코로나19 장기화에 태풍까지 올라오고 있어 민생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국민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에 이뤄지도록 도민 안내·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 운영을 강화하는 등 취약계층 응급의료체계와 교통 등 명절 종합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추진하라"고 독려했다.

김영안/기자

경기연구원, 공정과 지속가능 프로젝트 출간 완결

우리 사회의 공정성, 지속가능성에 관한 담론적 논의 확산 계기로 삼아야



경기연구원이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하여'와 '공정한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출간함에 따라 공정성, 지속가능성을 분야별 6편에 걸쳐 다루는 '공정과 지속가능 프로젝트'를 완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원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 패러다임 대전환을 모색하는 '공정과 지속가능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7월과 8월 사회, 도시·부동산, 경제, 복지 분야 신간을 출간한 바 있다.

민주주의 분야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하여'는 포퓰리즘 담론을 넘어 주권자 뜻이 정치와 사회 등 모든 영역에 관철되는 '민주주의의 확장'에 대해 고찰한다.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을 비롯한 총 16명의 전문가가 집필에 참여했으며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사상적 배경과 흐름, 역사적 전개, 민주주의의 다양성 등을 논의한다.

국제질서 분야 '공정한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공정한 동아시아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응해 대한민국이 다자협력을 선도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추진하자는 내용이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을 비롯하여 총 11명이 저자로 참여했다.

조혜영/기자

충북도,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공모사업 선정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주관, 임산물 생산 집적화

충북도는 산림청에서 공모한 '2022년 산지종합유통센터 공모사업'에 영동군 마루영농조합법인이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는 생산 ·가공 ·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 등을 통해 대외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영동군 매곡면 장척리 소재 마루영농조합법인(대표 박재원)은 총사업비 5억원(국비 2.5억)을 확보했다.

마루영농조합법인은 2022년 영동군 매곡면 장척리 일원에 냉동창고와 건조설비를 갖춘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를 구축하고, 기계화된 건조 방식을 도입하여 품질이 우수한 곶감을 생산할 계획이다.

특히 곶감 원료인 떫은감을 생산하는 지역농가들이 주요 공급원으로 자리잡아 지역 임가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근묵 산림정책팀장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의 대표 임산물(떫은감)의 원활한 가공·유통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임업 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산자단체들이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 증대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임산물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경북도, 추석맞이 수산물 상생할인 행사 개최

경상북도는 15일 포항 죽도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산물 유통 종사자들을 위해 추석맞이 수산물 상생할인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포항수협 죽도위판장 및 죽도시장 입구에서 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인쿠폰을 지급해 향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이벤트행사로 행사부스에서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 100명에게 선착순으로 사은품(쇼핑카트)을 지급하고, 또한 10만 원 이상 구매고객 100명에게는 영수증 교환 사은품(우산)을 지급했다.

송경창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산물 방사능 측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대전시,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9.14~9.15. 옛 충남도청 앞마당… 제수용품, 농축산물 20% 저렴

대전시는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옛 충남도청사 앞마당에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협경제지주 대전지역본부에서 주관하여 우리지역 및 충남·북 지역 19개 농가가 재배한 사과, 배 등 제수용품과 축산물, 지역 업체가 생산한 흑마늘 등을 시중보다 20% 정도 저렴하게 판매한다.

이번 장터는 매주 화요일마다 옛 충남도청사 앞마당에서 이루어지는 직거래 장터를 추석을 맞아 하루 더 연장하여 15일까지 운영하는 것이다.

이번 행사는 올해 저온 피해, 폭염 등 기상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명절 제수용품 구입 비용을 절감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 박익규 농생명정책과장은 "추석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운영하게 되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눈 앞'

세종특별자치시가 15일 시청 집현실에서 발기인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재단설립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설립취지문(안) 채택, 정관 제정(안),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이사장 후보자 추천 등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총회 결과에 따라 확정된 정관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마련해 중소벤처기업부로 재단 설립허가를 신청하고, 오는 10월말까지 인가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세종신용보증재단 출범을 위해, 앞으로 임원 구성·직원 채용, 사무실 환경 구축 등 필요한 제반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오는 11월 사무실을 개소한 후, 내년 1월부터 보증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시는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으로 그동안 공주, 천안 등에서 자금 지원을 받던 관내 상인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보증지원 확대 등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발기인 총회를 통해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이 한층 가까워졌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완료시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은/기자

파주시, 제8차 당정협의회 개최

내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및 지역현안 해결 건의

파주시는 14일 지역 국회의원 등과 '내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제8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당정협의회에는 최종환 파주시장과 윤후덕·박정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한양수 파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파주시는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운정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운정건강공원 시설 개보수 등에 대한 예산 확보를 건의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추진현황 및 백신접종 향후계획 ▲GTX-A 노선 사업 추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국비) 확대 건의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시정 현안 및 2022년 예산확보 등에 있어서 당정이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임해 나간다면, 시민들에게 더 큰 희망이 되고 코로나19 극복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협력해 파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충북농기원, '충랑' 포도 수출단지 재배기술 현장지원

포도다래연구소, 신품종 '충랑' 수출 증대 위한 현장컨설팅 추진

충북농업기술원은 14일, 포도다래연구소에서 자체 육성한 '충랑' 품종의 내년도 고품질 포도생산과 수출 확대를 위해 옥천 '충랑' 수출 농가를 방문해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

현장컨설팅 대상 농가는 옥천수출포도영농조합법인(대표 박순자)에 소속되어 있는 농가들이다.

포도 '충랑'은 국내 캠벨얼리를 대체할 품종으로 포도다래 연구소에서 2016년도에 개발하여 보급한 신품종이다.

'충랑'은 씨가 없고, 캠벨얼리 향에 단맛과 신맛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특히 당도가 18Brix로 매우 높다.

크기는 거봉처럼 크고 과육이 탱글탱글하여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조건을 두루 갖추었다.

'충랑'은 보급초기 단계로 농가별 재배기술 수준의 차이를 보여 선별과정의 품질 규격이 다르면 수출 판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날 현장설명회에서는 '충랑' 우수 재배 농가를 초청해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포도다래연구소 송명규 환경이용 팀장이 포도수확 후 품질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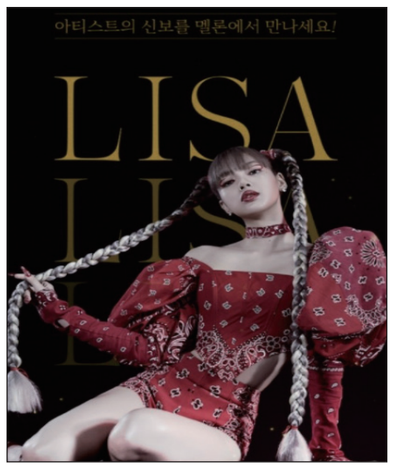
한편, 옥천수출포도영농조합법인은 지난 7일 '충랑' 포도 572kg(2kg, 286상자)을 홍콩에 수출했으며 올해 총 10톤을 홍콩에 수출할 계획이다.

도 농업기술원 포도다래연구소 이경자 소장은 "포도 신품종이 현장에서 안정적 재배기술을 확립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에 부딪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교육을 실시하였다."라며, "앞으로 '충랑' 수출의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기술개발과 컨설팅 지원으로 농업인 소득창출에 힘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블랙핑크 리사, 화려한 솔로 데뷔 신고식! 케이팝 레이더 차트 1위

케이팝 솔로 아티스트 뮤비 중 최단 기간 1억뷰 돌파



블랙핑크의 리사가 발매 하루만에 케이팝 레이더 주간 차트 1위에 오르며 화려한 솔로 데뷔를 알렸다.

리사의 첫 솔로곡인 'LALISA(라리사)' 뮤직비디오는 케이팝 레이더 37주차 집계 기간 (9월 5일 ~9월 11일) 동안 8,735만 뷰를 기록하며, 데뷔와 동시에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리사의 신곡 'LALISA' 뮤직비디오는 공개 1시간 30분만에 1천만 뷰를 돌파하며, 케이팝 솔로 여가수 사상 최단 1천만 뷰 기록을 달성했다. 이어 발매 49시간 만에 1억 뷰를 돌파, 케이팝 솔로 아티스트 중 최단 기간 1억 뷰 돌파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에 대해 케이팝 레이더 측은 "블랙핑크 멤버들이 솔로 곡을 발매 할 때마다 매번 신기록이 경신되고 있다"며, "케이팝 유튜브 퀸의 면모를 어김 없이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리사가 컴백한 직후 블랙핑크 유튜브 구독자는 약 30만 명 급증했고, 이번 37주차 동안에도 총 130만 구독자가 증가하며 누적 6천6백만 구독자를 넘어섰다.

이로써 기존 6천5백만 구독자를 보유하며 전세계 1위를 유지하던 저스트 비버를 제치고, 블랙핑크가 '전세계 유튜브 구독자 1위 아티스트'에 오르는 명예를 거머쥐었다.

뮤직비디오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SNS 지표 역시 눈부셨다. 리사의 개인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지난 일주일 간 약 62만명 증가했다.

이는 전주 증가량 대비 1.5배 더 치솟은 수치로, 리사의 인스타그램은 누적 6천만 팔로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스포티파이 팔로워 역시 생성 2일 만에 50만 팔로워를 돌파하며 9월 11일 기준, 케이팝 레이더 스포티파이 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주간 트위터, 스포티파이 팔로워 차트에서는 방탄소년단이 각각 18만, 30만 팔로워를 추가하며 정상을 유지했다.

주간 뮤직비디오 차트에는 4세대를 이끌어갈 대표 걸그룹 스테이씨와 퍼플키스의 '색안경'(1,866만 뷰)과 '좀비'(1,181만 뷰)가 나란히 2위와 3위에 진입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케이팝 레이더는 음악 스타트업 스페이스오디티가 케이팝의 급성장에 따라 팬덤의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오픈한 팬덤 데이터 전문 서비스다.

현재 한국 아티스트 646개 팀의 뮤직비디오 조회수, 유튜브 구독자, 트위터, 인스타그램, 스포티파이 팔로워, 팬카페 회원수 등의 변화량을 그래프와 차트 형태로 웹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트위터와 공식 파트너 협약을 맺고 '2020 #KpopTwitter 월드맵'을 공개해 화제를 모은 바 있으며, 케이팝 팬덤을 위한 앱 '내 손안의 덕메이트, 블립(blip)'을 출시해 팬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현유주/기자

콜드플레이(Coldplay)X방탄소년단, 새 싱글 'My Universe' 9월 24일 발매

콜드플레이(Coldplay)가 그간 많은 기대를 모았던 방탄소년단과의 콜라보레이션 소식을 오늘 발표했다. 'My Universe'는 9월 24일 발매될 예정이다.

영어와 한국어로 부른 이 트랙은 콜드플레이와 방탄소년단이 직접 작사, 작곡하였으며, 맥스 마틴(Max Martin)이 프로듀싱했다. 음원사이트 내 사전 주문과 사전 예약, 그리고 싱글 CD 구매는myuniverse.coldplay.com에서 가능하다.

'My Universe'는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콜드플레이의 'Higher Power'에 이어 10월 15일 발매를 앞두고 있는 앨범 [Music Of The Spheres]에 수록될 두 번째 싱글이다.

최재은/기자

임영웅 "TV조선과 마침표...앞으로 새 여정 설렌다"

가수 임영웅이 TV조선과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종료되면서 새 출발하는 소감을 밝혔다.

임영웅은 지난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다.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첫발을 내딛던 때가 어제 같은데 오지 않을 것 같은 헤어짐의 순간이 다가왔다"고 글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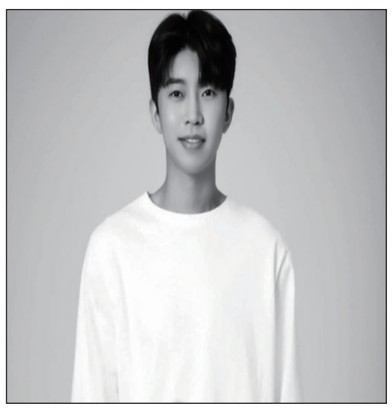
이어 "TV조선과 함께한 지난 시간들, 설레는 꿈을 안고 올랐던 미스터트롯 예심무대부터 사랑하는 고객님들과의 통화로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사랑의 콜센타. 그리고 언제나 즐거움을 선사했던 뽕숭아학당까지 정말 행복했고, 또 감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잠시 이별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함께라는 마음 놓지 않겠다. TV조선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다. 행복했다"며 "회자정리, 거자필반.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써놓고 보니 어디 멀리 가는 사람 같다. 앞으로 보여드릴 게 훨씬 많고, 재미있을 텐데 멀리 갈까봐 걱정하신 분들 없죠? 앞으로의 여정도 사랑하는 팬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 생각에 설렌다"고 말했다.

임영웅은 지난해 3월 종영한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우승하며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TV조선은 최근 '미스터트롯' TOP6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11일 종료됐다.

최만식/기자



티빙 '술꾼도시 여자들', 티저 포스터 공개!

같이 한잔하고픈 극강의 찐친 케미!

'술꾼도시여자들'에서 티저 포스터 '알콜&알콜프리 버전' 2종을 최초 공개해 기대감을 대폭 상승시키고 있다.

티빙 오리지널 '술꾼도시여자들'은 하루 끝의 술 한잔이 인생의 신념인 세 여자의 일상을 그린 본격 기승전술 드라마. 미깡 작가의 다음 웹툰 '술꾼도시처녀들'을 원작으로 이선빈(안소희 역), 한선화(한지연 역), 정은지(강지구 역), 그리고 최시원(강북구 역)이 만나 공감도 높은 이야기를 전한다.

먼저 공개된 알콜버전 티저 포스터 속에는 높이 들어 올린 술잔만큼 기분도 한껏 고조된 이선빈, 한선화, 정은지의 모습이 담겨 있다.

목구멍 깊이 털어 넣은 술 한 잔에 해묵은 스트레스가 씻겨내려간 듯 그녀들의 면면에서는 짜릿한 쾌감이 느껴진다.

이어 신명 난 그녀들과 사뭇 대비되는 청일점 최시원의 자태도 눈길을 끈다. 술꾼들 기세에 눌린 듯 빨대를 꽂은 요구르트를 소심하게 들어 올린 상황이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보기만 해도 같이 한잔하고픈 극강의 찐친 3인의 케미와 최시원의 관계는 무엇일지 드라마를 향한 호기심이 샘솟는다.

그런가 하면 둘 도 없는 친구로 뭉칠 이선빈, 한선화, 정은지의 알콜프리 버전 티저포스터 역시 흥미롭다. 시니컬부터 러블리까지 각기 다른 매력으로 똘똘 뭉친 세 배우가 보여줄 캐릭터는 어떨지, 더불어 극 중 술과 함께 펼쳐질 세 친구의 파란만장 서른 해의 일상까지 궁금해지는 상황.

여기에 "본격 기승전술 드라마", "오늘 먹을 술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등 심상치 않은 카피 문구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요동치게 할 정도로 재기 발랄해 벌써부터 '술꾼도시여자들' 매력에 취하게 하고 있다.

이렇듯 티저 포스터 2종 공개로 베일이 한 겹 벗겨진 '술꾼도시여자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로 올 하반기 유쾌한 재미와 함께 묵직한 위로를 선사할 예정이다.

티빙 오리지널 '술꾼도시여자들'은 오는 10월 티빙에서 단독 공개된다.

현유주/기자

영화 '인질'개봉 4주 차에도 극장은 여전히 열풍!

152만 관객을 돌파하며 2021년 개봉한 스릴러 영화 중 최고 스코어를 기록해 매운맛 스릴러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는 영화 '인질'이 개봉 4주 차에도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유지하며 흥행 질주를 이어나가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인질'은 9월 10일(금), 9월 11일(토), 9월 12일(일) 주말 3일동안 68,703명의 관객을 동원, 누적 관객수 1,521,459명을 기록하며 올해 개봉한 스릴러 영화 중 최고 스코어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내는 동시에 추석 연휴까지 지속될 장기 흥행 레이스에 안착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믿고 보는 배우 황정민과 김재범, 이유미, 류경수, 정재원, 이규원, 이호정 등 신예 배우들의 열연, 그리고 심장이 쫄깃해지는 매운맛 스릴러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질'은 개봉 5주 차에 접어든 지금도 폭발적인 입소문을 이어가고 있어, 과연 이 흥행 저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봉 5주 차에도 관객들의 주목을 받으며 거침없는 흥행세를 이어갈 영화 '인질'은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최재은/기자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 공개

오는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는 한국 전통 모시천의 실사를 바탕으로 부산국제영화제의 영문 표기를 손글씨로 흘려 쓴 디자인 작품이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주색인 붉은 색계열 모시천을 실사 촬영해 다양한 색으로 변주했다.

다채로운 색의 모시천을 겹쳐 색을 변주한 이번 포스터 배경은 세계 영화를 선보이는 '축제의 장'이 된 '영화의 도시' 부산을 나타낸다.

포스터 하단의 짙은 보라와 자주색은 부산의 밤바다를, 포스터 중앙에 여러 색깔의 모시천이 겹쳐지는 부분은 영화제가 펼쳐지는 하늘과 그 아래 공간을 의미한다.

화면 중앙을 둘러싸는 형태로 배치된 7가지 색상의 정사각형은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제작된 각국의 다양한 영화를 상징한다.

한국의 전통 유산인 '모시 짜기'는 모시풀을 모시천으로 완성하기까지 보통 석 달 정도가 꼬박 걸리는 고난의 작업이다.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이 일을 나누어 맡아야 완성되는 '모시천'은 한 편의 영화를 완성하는 영화인들의 노고를 대변해 특별한 의미를 더한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포스터는 제2회부터 부산국제영화제 미술감독으로 활동한 최순대 부산현대시각디자인협회장이 제작했다.

올해 공식 포스터를 공개하며 기대를 모으는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0월 6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열흘간 개최된다.

최광수/기자

2021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선정 김대건 신부 기념공연 뮤지컬 '우리 벗아'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과 2021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선정을 맞이하여 천주교 서울대교구(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가 주최하고 서울 가톨릭 연극협회(이후 서가연, 최주봉 회장)가 주관하는 기념 뮤지컬 '우리 벗아'를 10월 5일(화) - 10일(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공연합니다.

유네스코는 2019년 총회를 통해 김대건 신부의 탄생 200주년을 기려서 '2021년 세계기념인물'로 선정했다.

역사적인 인물을 배경으로 하여 제작된 뮤지컬'우리 벗아'는 국내외에 우리 문화의 전통과 우리 공연예술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제작되었다.

지금 세계는 2020년 초부터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고통 받고 있다.

탄생 200주년이 된 성 김대건 신부를 창작 뮤지컬로 만들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코로나 상황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헌사다.

박경희 작가는, "과거 200년 전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단순 역사극이 아닌,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극중극 형태의 작품으로 코로나19로 수입이 끊긴 영세한 프로덕션의 기획팀이 김신부에 관한 뮤지컬을 무대에 올리는 과정을 담아냈다."고 소개한다.

천주교가 박해받는 시기에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키고자 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의 길을 되돌아봄으로써 코로나19시대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겪는 현재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공연은 서가연 소속 중견배우와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된 20여명의 배우들이 출연한다.

정동희/기자

대세 걸그룹 에스파, 10월 첫 미니앨범

'새비지' 비롯 다양한 장르의 총 6곡

그룹 '에스파(aespa)'가 데뷔 11개월 만에 첫 미니앨범을 발매한다.

14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에스파는 오는 10월5일 첫 미니앨범 '새비지(Savage)'를 공개한다. 동명의 타이틀 곡 '새비지'를 비롯 다양한 장르의 총 6곡이 실렸다.

이번 앨범은 에스파가 작년 11월 데뷔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피지컬 앨범이다. 에스파는 앞서 데뷔곡 '블랙맘바(Black Mamba)'와 싱글 '넥스트 레벨(Next Level)'로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 수 1억 뷰 달성, 국내외 음원 차트 1위 등극 및 롱런 인기를 이어가며 대세 걸그룹 반열에 올랐다.

특히 에스파는 아바타와 함께 하는 세계관으로 '메타버스 걸그룹'이라 불리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게임, 뷰티, 의류, 금융, 통신 등 다양한 업종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는 등 광고계 블루칩으로도 급부상하고 있다.

한편, 에스파의 메가 히트곡 '넥스트 레벨'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리믹스 싱글 '아이스크림(iScreaM) Vol.10 : 넥스트 레벨 리믹스(Next Level Remixes)'가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악 사이트에서 공개된다.

최만식/기자